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11년 4월 6일
음력 3월 4일

월간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지성(이기식)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5년 제137호

제77회 춘계강공회 개최

4월 19일부터 21일 까지



▲지난 제76회 강공회에서 스승들은 '새로운 종풍운동'을 다짐했었다.

불교 총지중 통리원은 제77회 대명 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3시에 개강불사가 시작되며, 효강 종령 예하의

정신교육이 진행된다. 종령 예하는 지난 추계 강공 때 세웠던 '새로운 종풍 운동'에

대하여 재 강조하며, 교화방법론에 대해 강의한다. 승단 총회에서는 중앙 종의회 및 원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논의 할 사항을 토론하게 된다. 강공강의는 법경정사의 '상장례 불사' 시연, 화령정사의 '밀교의 관법' 중 '아'자에 대하여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김종인 연구원은 미래지향적 조직문화에 대한 '총지중의 조직문화'를 강의 한다.

이튿날에는 불국사와 석굴암의 관불이 있을 예정이다. 통리원은 이번 춘계 강공을 통하여 참된 스승상을 재정립하고 중생제도 및 교화를 재다잡하는 장으로 준비하고 있다. 스승들이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종단운영에 기초자료를 삼을 예정이다.

〈박종한 기자〉

종단 「상장례 불공」 개정안 시연

수인사에서 제4차 종책토론에서 선보여



▲법경정사가 종책토론회에서 스승들에게 시연을 하고 있다.

종단의 '상장례 및 49재 천도 불사법요(개정안)'에 대한 시연과 토론회가 3월 24일 포항 수인사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지난해 11월 부산 정각사에서 열린 상장례에 대한 제3차 종책토론회의 연장이며 이후 각 교구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추진위원인 인선 총무부장을 대리하여 시정 준비위원회 사회

를 맡았고, 토론회 참석자는 부산경남교구장 지광 정사, 대구경북교구장 지공 정사, 서울경인교구 총무 록경 정사, 부산경남교구 총무 도현 정사, 대구경북교구 총무 안성 정사, 충청전라교구 총무 승원 정사, 원당 정사, 인법계 전수, 정인화 전수, 정원심 전수, 해안정 전수 등의 준비위원을 비롯하여 간사인 법경정사, 수현 정사, 우인 정사가 배석하였고, 대구경북교구 사원의 스승님들이 회의에 동참했다.

집공에 이어 사회로 나선 준비위원 시정 정사는 개회사에서 "오늘 회의는 상장례 및 49재 불공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자리가 아니고 시연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종책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연은 밀교연구소 법경 정사의 집공으로 입관불공과 발인불공, 화장장불공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시연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진언과 계승을 가미하고 부분적으로 고쳐 장단을 넣어서 엄불식으로 진행한 시연은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고 하면서 대체로 "인상적 이었다"는 반응이었다.

법경 정사는 "이번에 제안한

개정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고 또다른 새로운 안이 나온다면 그 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연한 내용 가운데 입관불공과 관련하여 "스승이라 할지라도 형편상 입관에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입관의식을 하지 않았던 스승들도 많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다루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지불공에 대해서는 "요령과 동발을 사용하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므로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보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계승 부분과 관련하여 "같은 내용을 한문과 한글로 두 번 독송하는 것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므로 한문계승은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식과 관련된 건의사항도 개진되었다. 부산경남교구 총무인 도현 정사는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내용으로, ①고급품의 왕생다라니 제작 ②가치토를 티백(Tea-Bag)형식으로 제작 ③화장이나 장지불공시 법의가 불편하므로 야외 의식용 법의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에 통리원의 시정 준비위원은 왕생다라니 제작과 가치토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외용 법의로는 기존의 검정색 법의를 착의하지는 의견이 있었다. 상장례의 기본 골격은 갖추되 법문과 발원문 선택에 있어서 집공자의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지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날 회의의 결론은 승단의 모든 스승님들이 모이는 금반 4월의 춘계강공회에서 다시 시연회를 갖도록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수차례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강공회(講工會)의 역사 (70년대)

1. 제1회 강공회 (1973년 6월 27일) 성북선교부 도량에서 6월 29일까지 3일간 강공회를 개최했다.
2. 제5회 강공회 (1975년 4월 22일) 성북선교부 도량에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호국계주경(守護國界主經)」과 「불교충전」중에서 국가편에 대한 강설을 했다.
3. 제14회 강공회 (1979년 10월 23일) 총지사에서 대종사의 밀교의 비밀의의와 밀교의 연대적 구분 강설했다.

- (1) 총기 9년도 상반기 49일 불공정진을 2월 19일부터 스승과 교도가 함께 정진할 것을 지시했다.
- (2) 현재의 서원사항 결정: 총지중 교세발전부터 자기사원 교화발전까지 세웠다.
- (3) 준제연명법을 승직만 우선 수행을 행하도록 지시했다. 인명(印明)은 연화인으로써 음가마래미마래준제 사바하, 갑주인으로서 음바일라지니바라디파다야 사바하, 실현시현했다.

새로운 종풍운동(宗風運動)

-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 실천해 나갑시다.
-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시다.
-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통리원 집행부, 사감원 사무감사 받아

지적사항의 향후 개선이 요구

불교총지중의 통리원을 비롯하여 법장원, 복지재단, 유지재단 등 모든 업무부서가 사감원 감사를 받았다.

사감원은 3월 29일~30일 양일에 걸쳐 통리원 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는 법상인 사감원장, 지공 정사, 법우 정사, 지광 정사, 안성 정사(이상 사감위원)와 인선 총무부장, 시정 재무부장, 화령 교육원장, 법경 밀교연구원, 부서 교무 전원이 참석하였다.

사감위원들은 해당업무 감사가 여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와 준비를 통리원에 당부했다.

사감원장 법상인 전수는 총평에서 "집행부와 교무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감사하며,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업무가 향상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사감위원들은 △교무들의 채택처리 기준 △훈인, 장례에 대한 법률회비건 △법장원과 교육

원의 분리건 △교화 활성화에 대하여 통리원 연구요망 △승직자간의 위계질서 필요 △차량운행일지 결재건 △현계표는 관인, 송금보고서는 직인 사용 △필요시 장부정리에 대한 교육 △밀교연구소의 법장원에 흡수필요 등을 지적하였다.

사감위원들은 지적사항에 대

하여 개선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날짜의 명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사후처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감원은 감사 총평의 결과 보고서를 4월 13일에 열리는 중앙총의회에 제출하며, 총의회의원들에게 감사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 법상인 사감원장이 통리원 직원들에게 감사 총평을 하고 있다.

종조법설

중생의 생활

큰 돌은 홍수를 만나면 역상을 하고 대인(大人)은 역경(逆境)에 처하면 향상을 한다.

은혜는 평생으로 잊지 말고 수원(水源)은 일시라도 잊지 말라. 삼과 벌은 형상은 없으나 화복은 큰 것이다. 사람의 칭찬보다 진리의 복덕성이 더욱 크다. 마음이 광대하면 행복도 또한 크다. 우리들은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고 또한 불만 속에서 생활한다.

제77회 춘계강공회

교화와 종단 발전 방안을 논의 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수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총기 40년 4월 19일~21일
- 장 소 : 경북 경주 대명 리조트
- 대 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지 성



불교박람회에서 종단 홍보 성과 앞으로 종단홍보 다양화 및 집중화 필요



▲ 스승과 교도, 일반인들이 총지종 홍보관에 들렀다.

불교 총지종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총지종은 일반인과 불교신도서 열린 한국 불교박람회에 참

양계(금강계, 태장계) 만다라를 소개하였다. 불자들은 본존이 불상이 아닌 진언으로 되어있어 관심을 갖고 관람하였다. 밀교사상을 알리기 위하여 '대승장엄 보왕경', '대일경', '밀교사상 개론' 등을 비치했다. 종단홍보는 소개책자인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홍보팝프렛, 위드나드라마와 총지종보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옴마니반메훔' 탁본과 양계만다라 퍼즐을 준비하여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흥미를 주었다. 이 자리에는 화령정사의 '내 인생의 멘토 붓다' 출판간연회도 있었다. 이번 행사는 룡경정사, 원탈정사, 법일정사, 법경정사 등이 교대로 상주하여 불자들에게 총지종과 밀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이번 박람회를 통하여 정사들의 공통적 의견은 종단을 홍보한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인 효과

과가 있었다고 했다. 법일정사는 "홍보위주의 전략을 접었다면, 격식을 떠나 불단은 차제하고 판넬 사진을 위주로 한 총지종소개에 치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으며 지역 사원 홍보도 필요하다고 했다. 법경정사는 "서원당에서 수행하는 사진 전시와 염송체험관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호기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박람회와 비교했을 때 참가업체와 소개품목이 늘어나 상업적인 이미지가 커졌지만 타 종단의 참여빈도는 줄었다. 장소도 지하철역과 연계가 안되어 참관인이 많지 않은 것과 주최 측의 적극적인 홍보가 아쉬웠다. 향후 불교적인 내용을 확충하여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져 줄에 다닐 수 있는 포교의 일환으로 발전하는 불교 박람회가 되기를 바란다.



▲ 중앙종의회에서 인선 총무부장이 벽룡사 신규 건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원의회 및 중앙종의회 개최 벽룡사 건물 매입 가결

불교 총지종은 3월 15일 원의회, 중앙종의회, 재단이사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인선 총무부장의 집공으로 시작된 회의는 중앙종의회 대원회장, 지광 부의장을 비롯하여 종의회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다. 안건 내용 중 중요안건은 벽룡사 건물매입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벽룡사는 장소가 협소하여 작년부터 이전문제가 대두되었다. 향후 본산건설비를 차용하여 벽룡사의 신규이전에 따른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전하게 될 사원의 위치는 대방동 보라매공원 근처이며 지

상6층 건물이다. 현 벽룡사 건물은 원룸형식으로 새로 짓게 된다. 기타 안건으로는 3월 24일 수인사에서 종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상정례 개정안을 토론했으며 법경 정사가 시연하는 것으로 했다. 한편 차기 원의회, 재단이사회, 복지재단이사회는 4월 12일(화)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며, 중앙종의회는 4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안건은 결산심의와 임원추천, 법규집 개정 등 논의될 예정이다.

꿈과 희망의 후원금



▲ 바라밀지역아동 김수경 센터장이 참고서를 강지민 학생대 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관성사(주교 인선)는 3월 18일 사회복지재단 바라밀지역 아동센터에 훈훈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참고서, 문제집, 학용품 등을 구입했다. 김수경 센터장은 "후원자의 마음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커지도록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했다.

알림

- ▶4월 4일 ~ 10일 4월 월초 불공
- ▶4월 8일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
- ▶4월 12일 원의회, 재단이사회, 사회복지 이사회
- ▶4월 13일 중앙종의회
- ▶4월 13일 전법관정 수계식
- ▶4월 19일 ~21일 제7회 강공회

‘연등행렬축제’ 5월 7일(토) 동국대 운동장 만해광장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연등축제를 5월 7일~8일 양일간 하며, 5월 7일(토)에 연등행렬을 한다고 밝혔다. 연등행렬축제는 해마다 일요일에 종로거리를 걸었으나, 올해는 5월 8일(일)이 어버이날 이므로 하루 앞당겨 토요일에 실시한다고 했다. 행사일정은 5월 7일(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동국대 운동장에서 어울림마당을 가져 그룹별

운동과 연희단 행사를 갖는다. 이어 오후6시부터 9시30분 까지 종로거리를 통과하여 조계사까지 연등 축제행렬이 이어진다. 봉축위는 '참가자중심의 역동적인 축제'라는 비전을 갖고 자발적이고 신명나는 축제참여로 이끌려고 한다. 그 나라의 전통 옷을 입고 등불을 밝히는 거리행사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행사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외국인들이 연등축

제를 보러 입국하는 인원이 늘고 있어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한다. 일반시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통리원 사회부는 연등행렬축제에 총지종 연희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개인등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 호응이 좋았던 농악대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연등

부처님께 연등을 올립니다. 번뇌와 무지로 가득찬 어두운 종생의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 총지사 서원당 -

전법관정 수계식 봉행 대아사리 종령 효강 대종사

통리원은 전법관정 수계식을 4월 13일 오후 2시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한다. 이번 계사 아사리를 수계 받는 데 대아사리는 종령 효강 대종사이다. 증계 아사리는 해암 정사, 원봉 정사, 우승 정사, 총지화 전수(이상 기로스승)가 받음 예정이다. 또한 전계아사리는 지성 통리원장, 교수아사리는 범공 정사(기로 스승), 갈마 아사리는 법등 정사(덕화사 주교), 결계 아사리는 환수원 전수(사법사 주교), 심지장 전수(선립사 주교)가 각각 위촉된다. 수계를 받는 스승은 인선 정사(관성사 주교), 도현 정사(운천사 주교), 법일 정사(벽룡사 주교), 자행정 전수(벽룡사), 자인행 전수(운천사), 서령 정사(혜정사 주교), 덕광 정사(건화사 주교), 묘홍 전수(법성사 주교), 지현 전수

(단음사 주교), 보현 전수(건화사), 정원 전수(정각사), 덕현 전수(총지사) 등 총 12명이다. 한편, 관정은 전법관정, 수명관정, 결연관정의 3종이 있다. 전법관정은 정사, 전수에게, 수명관정 및 결연관정은 종무원과 법로장, 도장, 전교, 시교 조장들에게 행한다. 이날 전법관정 수계법요는 밀교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된다. 수계법요는 갈마아사리의 개단선언을 시작으로 교수아사리의 삼취정계승 참승, 훈향 정공, 참회서원, 오대서원, 수계자 귀명참회, 대아사리 청사 봉독, 3·7의계 유가염송, 수계 권청문 봉독, 전계아사리 향수 및 서수 가지기도, 수계심덕교설과 삼취정계교설, 수계의식, 서수 인지문 설독, 관정 및 서수 수여, 수계증과 행위승서 수여, 선서문 봉독으로 진행된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개천사	무명씨	3/3	10,000
개천사	이희권	3/23	10,000
개천사	진경택	3/4	20,000
관성사	박길화	3/2	10,000
관성사	황성녀	3/3	10,000
교산수련원	권성수	3/17	10,000
기로	경 관	3/18	10,000
기로	대 관	3/21	10,000
기로	대도행	3/18	10,000
기로	대자행	3/21	10,000
기로	밀공정	3/21	10,000
기로	법수원	3/21	10,000
기로	법장화	3/21	10,000
기로	법지원	3/21	10,000
기로	불멸심	3/21	10,000
기로	사홍화	3/21	10,000
기로	상지화	3/21	10,000
기로	수증원	3/21	10,000

기로	총지화	3/21	10,000
단음사	법연지	3/18	10,000
단음사	천 공	3/7	4,000
덕화사	하순옥	3/15	5,000
만보사	정덕순	3/2	10,000
만보사	정덕순	3/25	10,000
밀인사	김덕배	3/23	20,000
밀인사	묘심해	3/20	10,000
밀인사	원 당	3/20	10,000
밀인사	이연수	3/20	10,000
밀인사	이위임	3/21	100,000
밀인사	이재갑	3/20	20,000
밀인사	이혜성	3/15	20,000
밀인사	정정희	3/2	5,000
백월사	김현중	3/16	10,000
백월사	이갑진	3/25	10,000
법천사	김정숙	3/3	5,000
법천사	시 정	3/21	10,000

법천사	원만원	3/21	10,000
벽룡사	양정원	3/2	10,000
벽룡사	양정원	3/25	10,000
벽룡사	양지현	3/2	10,000
벽룡사	양지현	3/25	10,000
삼밀사	원 송	3/2	10,000
삼밀사	인법계	3/2	10,000
선립사	심지장	3/18	10,000
선립사	정복지	3/18	10,000
성화사	우담배라	3/14	50,000
수인사	김봉기	3/2	10,000
수인사	장영택	3/3	50,000
승천사	원 봉	3/17	10,000
승천사	지선행	3/17	10,000
실보사	무명씨	3/4	10,000
실보사	정법계	3/24	10,000
실보사	조순애	3/14	50,000
실보사	해 정	3/24	10,000

실지사	송우섭	3/2	5,000
실지사	송우섭	3/16	5,000
실지사	이화수	2/28	10,000
실지사	정경자	3/24	5,000
운천사	반야화	3/15	20,000
자석사	신문이	3/17	30,000
자석사	CCH	3/25	10,000
정각사	구정희	3/10	20,000
정각사	김문수	3/2	10,000
정각사	김문수	3/11	10,000
정각사	박동휘	3/24	10,000
정각사	이정선	3/16	5,000
지인사	허성동	3/3	20,000
지인사	허성동	3/24	20,000
총지사	유성열	3/3	10,000
총지사	이인성	3/3	30,000
혜정사	오혜민	3/14	20,000
회음사	무명씨	3/18	10,000

회음사	수 현	3/22	10,000
회음사	자심관	3/22	10,000
흥국사	지 정	3/17	20,000
	강순란	3/4	5,000
	기업은행	3/2	100,000
	박말조	3/21	5,000
	박준영	3/9	100,000
	보덕제	3/4	20,000
	안효정	2/28	20,000
	이종호	2/28	25,000
	이혜원	2/28	5,000
	이희원	3/10	10,000
	임동수	3/15	30,000
	최순전	3/22	2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불기2555년 부처님오신날 특별기획 ①

‘불교 4대 성지’를 가다!

인류의 영원한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 - 『룸비니』

네팔 남부 타라이 지역에 위치한 룸비니는 기원전 563년, 훗날에 석가모니라고 불리게 되는 고타마 싯다르타 태자가 태어난 불교 성지이다. 석가모니는 석가(釋迦)족 출신의 성자(聖者)라는 뜻이다.

룸비니는 석가(샤카)족의 도읍이었던 카필라바스투(카필라)에서 서쪽으로 약 16km지점에 위치해있다. 석가 탄생 이후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왔으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인도의 아쇼카왕은 이곳에 석가를 찬미하는 기념 돌기둥을 세웠다.

이 돌기둥은 1896년 발견되었는데, ‘이곳에서 샤카족의 성자(聖者) 불타가 탄생한 것에 연유해서 룸비니 마을은 세금을 면하고, 또 생산량의 1/8만을 납입한다’라는 의미의 법칙이 새겨져 있어 석가 탄생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곳곳에 불타의 탄생과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이 지역을 다스리던 수토다나(정반왕) 왕과 마야데비 왕비 사이에서 잉태됐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재세시와 그 이전에 싯달타 태자로 있을 당시의 룸비니 지역에는 석가족과 팔리아족이라는 두 가문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당시 싯달타 태자의 아버지 수토다나왕은 태양족의 아들이라고도 불리는 석가족의 크샤트리아(무사) 계급으로 카필라성과 함께 현재의 네팔 평야 지역에 위치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

한편 그에게는 마야데비라 불리우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녀는 애기를 낳을 때가 되어 데바다하에 위치한 그녀의 친정으로 가는 중에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에서 싯달타 태자를 낳게 된다. 룸비니는 싯다르타 태자의 외할아버지가 아내의 이름을 따 조성한 동산이다.



▲멀리서 바라본 룸비니 동산의 마야데비 사원. 오른쪽으로 희미하게 아쇼카왕의 석주가 보인다.

싯달타 태자의 탄생설화는 많은 불교경전에서 흥미롭게 묘사되고 있다. 경전에 따르면, 싯달타 태자는 전생에 이미 깨달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는데 마침내 때가되어 하늘의 도술전에서 내려와 마야데비의 뱃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왕비 마야데비는 임신 10개월이 되던 때에 그 당시의 풍습대로 아이를 낳기 위해 그녀의 친정집이 있는 데바다하로 떠나게 되는데, 친정집으로 향하던 중 음력 4월 8일 보름날,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에 이르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룸비니 동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정신없이 쳐다보며 한참을 서있을 동안 갑자기 출산의 진통이 찾아왔고 무우수 나무의 가지를 붙잡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싯달타 태자가 태어날 때 브라만신이 아이를 받아주었고 또다른 신들과 처녀들은 마하데비 왕비를 보호해주었으며, 하늘에서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내려왔는데 이 물로써 아이를 씻어 주었다고 한다.

또한 아이를 낳은 후 왕비의 몸을 씻기 위해 향유(香油)가 가득한 연못이 생겨나기도 하였으며 이것을 상징하듯 지금도 기름강이라 불리우는 강이 룸비니 동산에 있는 아쇼카 석주의 남동쪽으로 흐르고 있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사방으로 차례로 돌아본후 북쪽을 향해 일곱 걸음을 걸었으며, 그때 태자가 밟았던 걸음마다 땅에서 연꽃이 피어올랐다고 한다. 걸음을 멈추고 부처님은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킨후 다음과 같이 외쳤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삼계개고아당안지(三界皆苦我當安之)”라고 외쳤다. 이 내용은 경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다. ‘하늘 위, 땅 아래에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일체의 모든 괴로움은 중생을 위하여 내가 멈추게 하리라. 이것은 나의 마지막 탄생으로 이제 더 이상의 태어남은 없을 것이다’라는 유명한 탄생계를 남기게 된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에서는 잇따라 일곱 개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바람이 멈추었으며 새들은 은신처를 찾아 날아들고 모든 나무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 고요와 평화가 온누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이 룸비니 동산은 기원전 3세기경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 왕이 돌기둥에 ‘신성한 지역’이라는 표시를 남겨 ‘부처님 탄생지’로 공인되었다. 그후 1896년 독일 고고학자 뢰러가 땅속에 묻혀 있던 기둥을 발굴하고 몇 년 뒤에 그 고대 문자를 해독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다.

룸비니의 발굴과 개발



▲룸비니 동산 안에 있는 보리수 나무. 마야데비 왕비가 태자를 낳을때 잡았던 나무는 남아있지 않다. 이 나무들은 부처님 탄생지를 기념하기 위해 후대에 심은 보리수 나무들이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기원전 249년에 아쇼카 대왕이 룸비니를 방문하여 4개의 스투파(탑)와 말의 모양을 조성한 석주(石柱-돌기둥)를 세웠다. 중국의 법현 스님과 현장 법사가 인도를 순례하면서 남긴 불국기나 대당서역기에 의하면, 룸비니에는 아름다운 목욕탕과 마야데비 왕비가 부처님을 낳을때 가지를 잡았던 그 오래된 무우수 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다. 룸비니 동산에는 커다란 보리수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서 각종 법회가 열리기도 한다. 이 보리수는 부처님의 탄생지를 기념하기 위해 후대에 심은 것이다.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탄생지를 경축하기 위해 석주를 세웠는데 중국 당나라의 현장 스님이 인도를 순례할 당시에는 석주가 벼락을 맞아 두 동강이 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석주 아랫부분은 그대로 서 있으나 그 옆자리에 석주의 윗부분이 땅에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룸비니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다가 1896년 독일의 고고학자 뢰러가 추리아 구역의 언덕을 돌아다니다가 아쇼카왕의 석주를 발견하였으며, 이후에 여러 곳에서 수많은 스투파와 절터를 발굴하게 되었다.

이후 1958년 제4차 세계불교대회에 참석한 네팔의 마헨드 국왕이 룸비니 개발을 위하여 많은 성금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어서 네팔 정부는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버마(현 미얀마) 출신 우 탄트에게 유엔 산하 룸비니개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우 탄트는 1967년 붓다의 탄생지 룸비니를 직접 방문하고나서 그 건의를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 룸비니 동산의 고고학적인 가치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룸비니의 개발계획을 제안했다. 여기에 룸비니개발위원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룸비니 동산 근처의 일정 용지를 국제사원구역으로 설정하고 99년간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각국 고유의 불교 사찰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했다. 현재 룸비니 동산 안에는 국제사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국의 대성석가사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티벳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20여 개국이 각국의 고유 사찰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룸비니와 관련해서 1978년 11월에는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불교신자회의에서 1979년을 ‘룸비니의 해’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룸비니 동산에 있는 한국불교사찰 대성석가사의 대웅전

룸비니 동산의 유적지

1) 아쇼카왕 석주



▲아쇼카왕 석주. 흰색 글씨가 아쇼카왕이 새긴 비문이다.

1896년 독일의 고고학자 뢰러가 추리아 언덕에서 아쇼카 석주를 발견하면서 부처님의 탄생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석주는 기원전 250년 싯달타 태자의 탄생지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이곳을 방문하였던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대왕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아쇼카왕의 통치 기간 중 20년쯤 되는 시기이다.

이 석주를 현장 법사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사천왕이 태자를 안았던 스투파에서 멀지않은 곳에 큰 돌기둥이 있다. 위에는 말모양의 조각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쇼카 왕이세운 것이다.’

나중에 악룡(惡龍)의 벼락 같은 큰 소리에 그 기둥은 가운데가 부러져 땅에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말의 모양을 한 머리부분은 없어지고 벼락 때문에 조금은 손상된 흔적이 남아 있는 나머지 석주에는 유명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

브라만의 문자로 다섯줄 남짓 쓰여져 있다. 내용은 이렇다. ‘많은 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다시(즉, 아쇼카 왕을 말함)왕은 즉위한지 20년이 지나서 직접 이곳을 찾아 기도하였다. 여기에서 붓다 석가모니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로 말의 형상을 만들고 석주를 세우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위대한 분이 탄생하셨음을 경배하며 룸비니 마을은 세금을 면제하고 생산물의 8분의 1만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경배의 기념으로 룸비니 마을에 특별한 혜택을 내린 것이다.

무엇보다 석가모니께서 탄생한 곳이라는 글귀는 귀중한 사료(史料)가 되고 있다.

현재 아쇼카 석주는 마야데비 사원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 높이가 7.2m이며, 석주 밑부분에서 약 3.3m되는 지점에 위에서 말한 아쇼카 왕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1976년에서 1978년 사이에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석주의 윗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말모양의 조각 일부가 아쇼카 석주의 북쪽 10m지점에서 발굴되었다. 이 조각들은 마우리아 왕조 시대의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것이다.

2) 마야데비 사원



▲마야데비 사원. 처음에는 외부건축물이 없었다. 사원 내부에 싯달타 태자의 탄생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현재 발굴작업 중에 있어 출입이 쉽지 않다.



▲룸비니 동산에 세워진 마야데비 사원 안에 있는 부처님 탄생 설화를 담은 조각상. 마야데비가 오른손으로 무우수 나무를 잡고 아이를 낳는 모습. 천녀들이 아이를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마야데비 사원은 아쇼카 석주의 동쪽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그 사원 안에는 기원전 3세기 초기부터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고 추정되는 붓다의 탄생장면이 부조(浮彫) 형태로 조각된 돌 하나가 놓여져 있다.

그 옆에는 같은 모양의 또다른 부조가 놓여 있는데 그 부조에는 마야데비 부인이 싯달타 태자를 낳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오른쪽에는 마야데비가 그의 오른손으로 무우수 나무를 잡고 아이를 낳는 모습과 그 아래 중간쯤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의 주위에 광배가 드리워진채 연꽃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고, 그 왼쪽에는 참초신인 브라만이 태어난 아기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과 두 천녀가 마야데비의 시중을 드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마야데비 사원의 바닥에 선명하게 새겨진 ‘아기 부처님’의 발자국 모양.

한편 윗부분에는 하늘의 천신들이 아이를 씻을 물과 연꽃을 뿌리고 있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이 조각물은 대략 AD 11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네팔의 카트만도 지방에서 융성했던 나가왕조의 말라왕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한다.

1976년에서 1978년까지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마야데비 사원 밑에서 마우리아 왕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황금제 사리의 뚜껑과 불에 탄 유골들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발굴 작업 중에 있어 출입이 극히 통제되고 있다. 마야데비 사원에 처음에는 지금과 같은 육중한 외부 건축물이 없었는데 나중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개발이 오히려 원래의 모습과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는데 유적지는 관리보존을 하되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고학의적 가치가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탄생 모습을 새겨놓은 조각물 아래에는 태어나서 일곱 발걸음을 했다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돌이 놓여있다.

3) 싯달타 연못



▲싯달타 연못. 마야데비가 부처님을 낳고 목욕을 했다고 하는 곳이다. 사진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연못의 오른쪽에 마야데비 사원이 있다.

사원의 남쪽으로 마야데비가 부처님을 낳고 목욕을 했다고 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싯달타 연못이 있다. 이 연못을 달리 ‘푸스카르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의 법현 스님이 룸비니를 순례하며 남긴「불국기」에는 ‘마야데비 부인이 목욕한 연못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신다’는 기록이 있으며, 현장 법사 역시「대당서역기」에 ‘룸비니 숲에 도착하니 석가족 사람들이 목욕하는 연못이 있다. 물이 맑아 거울과 같은데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4) 기타 유적지



▲룸비니 동산에 있는 스투파와 사원터의 유적들. 주위에는 보리수 나무들이 들어서 있다.

싯달타 연못 주변에서 발굴된 유적지는 꽤 넓은 편이다. 그곳에는 수많은 스투파들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연못 동쪽에는 AD 2세기경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사원의 터와 남쪽에는 AD 1~2세기경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사원의 터가 남아있고 석주 서쪽에는 아쇼카 왕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오래된 스투파들이 군데 군데 남아 있다.

〈밀교연구소 법경 정사〉

불교의 선정 ①

화 령

선정을 닦기 위해서는 바른 생활이 먼저

불교의 교리와 함께 중요한 것은 교리의 내용을 실천에 의하여 체득하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교에서는 선정을 통하여 교리의 내용을 체득하고 지혜를 개발하라고 한다. 물론 바른 선정을 닦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절제와 여러 가지 계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의 절제와 바른 계행이 없이 선정을 닦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임을 알아야 한다. 오계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상생활을 절제 없이 한다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선정을 닦으려 한다면 아집과 독선, 그리고 위선 만이 더할 따름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통일된 상태로 고요히 머무는 것을 정(定)이라고 하며, 이러한 수련을 정학(定學)이라고 한다.

‘정(定)’이라는 말은 사마디(samadhi)를 의역한 것인데, 음사하여 삼마지(三摩地) 혹은 삼매(三昧)라고 한다. 이것을 의역해서 등지(等持)라고도 하고, 또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 산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심일경성(心一境性)이라고도 한다. 보통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마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을 나타내는 말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사마히타라는 말도 있고, 사마빠티라는 말도 있으며, 이 밖에도 드히아나가 있으며, 짜타이카그라타라는 말도 있고 또 사마타리는 말도 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정 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인데, 너무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선정(禪定)이라는 말은 드히아

나를 음사한 선(禪)이라는 말과 중국의 한자인 정(定)이 합쳐진 것이다. 불교 특유의 명상법을 포괄하여 일반적으로 선정이라고 부른다.

불교에서의 삼학 가운데의 정은 사마디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마디가 가장 포괄적인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에 요가(yoga)라는 것이 있다. 요가는 불교 이전에 바라문교의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명상법이다. 이 말은 불교에서도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한문으로는 유가(瑜伽)라고 음사한다. 요가라는 말은 불교에서도 정이나 삼매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그 내용은 바라문교의 요가와 는 차원이 다르다. 밀교에서는 특히 이 유가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예를 들면, 삼밀유가(三密瑜伽)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와 신체 행동, 그리고 정신을 동시에 통제하여 삼매에 드는 것을 말한다.

선정의 형태는 어느 종교에서든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요즘은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것도 선정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도의 종교와 사상에서는 이 명상이 선정의 형태로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인도출신의 명상가들 가운데에는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명상의 원조는 인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인도의 선정은 불교보다도 그 기원이 훨씬 오래이다. 인도의 선사 시대의 유물 중에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의 신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인도에서는 명상이 발달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도의 기후나 풍토가 덥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식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인생과 우주의 신비 등에 대해 사색하고 명상하는 것이 발달했을 것이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고행과 명상을 병행하여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가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도 앞섰는지도 모른다.

불교에서도 인도의 이러한 명상 내지는 선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불교 이전 에 정식으로 선정이 행해지게 된 것은 대체로 우파니샤드 시대로부터라고 본다. 그 때에는 선정을 요가라고도 했고, 후에는 정려(靜慮)라는 뜻으로 드히아나(dhyana)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 나중에 중국에 와서 선나(禪那)라고 음사가 되었고, 그것을 줄여서 선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이다.

브라만 시대의 말기, 우파니샤드 시대의 초기에는 인도 사회에 계급 제도가 정착되고 바라문들은 4시기라고 해서 학생기, 가정기, 임서기, 유행기 등의 네 시기에 걸친 일생을 살았다. 그런데 이들은 임서기나 유행기 동안에 조용한 곳을 찾아 인생

과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고 신에 대해 명상하면서 선정법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에는 신흥 사문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고행과 함께 바라문들의 여러 가지 선정법을 채용하여 더욱 발전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서는 인도의 이러한 일반적인 여러 가지 명상이나 선정법을 경험하시고 마침내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하셨던 것이다. 부처님께서서는 다른 종교가나 사상가들과 달리 선정 그 자체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선정을 통하여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불교의 선정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선정은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인도 일반의 선정법과 유사하지만 그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정의 우열은 조용한 상태에 들어 마음을 멈추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통하여 지혜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사상에서의 선정과 불교의 선정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히 선정을 중시했다. 불교의 출가승들은 탁발을 나가거나 설법 하는 이외에는 거의 선정사유를 하였다. 선정이 정신을 통일하여 무념무상으로 되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불교의 선정은 지혜의 힘을 기르기 위한 것에 중점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선정심의 내용에서는 다른 종교나 사상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

마음을 통일하여 집중하는 선정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을 실천하는 것에 의해서 쉽게 깨달음의 지혜가 얻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계·정·혜의 삼학의 구조에서는 먼저 계율을 잘 지켜서 심신의 안정을 이루고 그것에 의하여 정을 실천한다. 그리고 정 의 실천에 의해서 깨달음의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며 깨달음의 지혜에 의하여 번뇌를 끊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다. 이처럼 열반은 깨달음의 지혜로부터 생기고 깨달음의 지혜는 선정으로부터 생긴다고 했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이 필요한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예를 들면, 등불을 들고 어둠을 비춘다고 할 때 큰 바람이 불어서는 등불이 꺼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등불을 바람이 불지 않는 방안에 가지고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고 잘 비출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지혜의 등불이 제대로 탈 수가 있다. 마음이 산란하고 흔들리는 상태에 있어서는 어떠한 생각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집안에 큰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다른 일에 열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선정으로서 마음을 고요히 해 놓지 않으면 정신집중이 될 수가 없고 바른 지혜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선정이 있어야 깨달음의 지혜가 유지될 수 있다. 순간적으로 나오는 재치가 아니라 꾸준히 지혜의 등불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요동 없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정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원래 정이라는 것은 불교이전부터 인도에서 내려오던 일반적인 실천법이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만났던 알라라 카라마나 우다카 라마뫼트라 같은 선인들도 선정의 대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의 수행은 불교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불교 이외의 인도의 종교나 사상에서는 깊은 선정의 경지를 열반과 동일시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어디까지나 정은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지 선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선정에 대해서 불교가 다른 종교나 사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정에 의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의 힘에 의하여 고의 원인인 번뇌를 단절하고 악의 무효업을 남김없이 제거하여 열반에 이르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이 아무리 깊은 경지에 도달해도 그 자체로서는 고로부터 해탈한 것도 아니고 열반에 이른 것도 아니다. 정에 들어 있을 때는 마음이 안락하여도 정에서 벗어나면 번뇌로 가득 찬 현실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선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깊은 명상에 들어 마음이 정지하거나 없어져 버린다면 선정을 통하여 얻어야 할 지혜도 얻지 못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부처님께서 알라라 칼라마와 우다카 라마뫼트라에게 선정을 배울 때 선정의 가장 깊은 단계인 무소유처정과 비상비상처정에 이르셨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의 곁을 떠나버리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어디까지나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것을 선정의 목적으로 보며 정 의 완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거나 열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종교나 사상과 다른 점이다.

총지동의보감

유즙부족증



조선휘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출산시 산모는 기와 혈을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의학에서 산후조리에 중요한 관건은 산후어혈을 쫓아내 부족해진 기와 혈을 보충해 임신전의 상황으로 산모가 건강을 회복해가도록 돕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후 21일간을 일차 산후조리기간으로 보고 100일간을 이차 산후조리기간으로 보아 그 만큼 출산전후 나타나는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회복을 돕는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의 경우 성형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외형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면서 정작 내면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일례로 출산 후 충분한 영양섭취와 휴식, 적극적인 수유 등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신중 체중의 증가와 살이 빠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식사량을 줄이고 수유를 하지 않으며 산후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등 잘못된 건강상식으로 산모를 비롯해 태아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신7-8개월 이후부터는 유선이 발달해 유즙분비를 서서히 준비하게 됩니다. 이후 분만을 하고나서 수유를 통해 유

출산후 충분한 영양섭취와 휴식 필요

1차 산후 조리기관 21일, 2차는 100일간

준비비가 촉진되고 정상적인 수유과정이 이루어질 경우 따라서 자궁수축을 돕게 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산후회복 또한 자연히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 수유를 할 경우 태아가 산모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는 과정이므로 산모는 단백질위주의 단백질 음식을 규칙적으로 잘 챙겨 보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유즙분비가 부족해 수유를 하고 싶어도 정상적인 수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유즙부족증이라고 하는데 원인은 산모가 체력적으로 많이 허약해 유즙생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와 유즙의 생성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예민한 성격, 평소 손발이나 하복부가 차고냉해 정상적인 기혈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도 유즙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유두자재의 기형이나 함몰, 수유법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유즙분비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즙생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산모의 부족한 기혈을 보강해줌으로 유즙의 생성을 돕게되며 유즙생성에 이상이 없을 경우 막힐 기혈을 풀고 어혈배출을 도와 막히고 정체된 유즙의 소통을 돕게 되며 또한 수유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따뜻한 맛사지와 규칙적인 수유방법을 익혀 숙지함으로 정상적인 모유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게됩니다.

유즙이 부족할 경우 대표적인 처방은 통유탕(通乳湯)을 활용하게 되며 주로 기혈이 부족할 경우 가미사물탕(加味四物湯)이나 팔진탕(八珍湯) 등을 가감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출산후산모는 모유수유 및 산후조리과정에 정성을 다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자궁건강은 물론 임신전으로의 건강을 회복해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총지정보 구독신청 및 문의

전화 : (02) 552-1080

메일 : bori9999@hanmail.net



총기 40년 전법관정 수계 법요식



〈계사 아사리〉

- 대 아 사 리 : 종령 효강 대종사
- 중계아사리 : 기로스승 혜암 종사, 기로스승 원봉 대정사, 기로스승 우승 종사, 기로스승 총지화 지수
- 전계아사리 : 통리원장 지성 종사
- 교수아사리 : 전임 법장원장 법공 종사
- 갈마아사리 : 덕화사 법등 대정사
- 결계아사리 : 시법사 환수원 지수, 선림사 심지장 지수

〈전법관정 수계 대상자〉

관정사 인선 / 운천사 도현 / 벽룡사 범일 / 벽룡사 자행정 / 운천사 자인행 / 혜정사 서령
전화사 덕광 / 법성사 묘홍 / 단음사 지현 / 전화사 보현 / 정각사 정원 / 총지사 덕현

불교 총지종 종령 효강 대종사

〈법요식〉

- 일시 : 총기 40년 4월 13일 오후2시
- 장소 : 본산 총지사 3층 서원당 금강계단
- 주최 : 통리원
- 주관 : 밀교연구소

※ 전법관정(傳法灌頂)이란?

밀교에서 스승이 될 수 있는 아사라위를 얻으려고 하는 수행자에 대하여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법을 주는 의식으로 진언(眞言)의 비오(秘奧)를 관정한다.

지상설법



원당

〈밀인사 주교〉

며칠전 일간지에서 사시합격자들 중에서 사법연수원 입소를 늦추고 미리 연수원 강의 준비를 하는 예비 연수원생들이 늘고 있다는 ‘연수원 선행학습(先行學習)’ 열기에 대하여 보도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원 선행학습’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사시 합격자가 급증하면서 판·검사 임용과 대형로펌 취직을 위한 예비 사시합격자들의 성적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수원 선행학습’으로 다른 사람보다 성적을 높게 얻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훌륭

한 법조인이 되려는 성직지상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행학습이란 학교 진도에 앞서서 학기 또는 학년을 뛰어넘어서 교육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선행학습 열풍은 비단 ‘연수원 선행학습’ 뿐만이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도 선행학습을 해야 남보다 앞서 갈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남보다 뒤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에 너도나도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참으로 공부해야 할 것은 선행학습(先行學習)이 아니라 선행학습(善行學習)입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요령을 배우는 선행학습(先行學習)이 아니라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을 실천하는 선행학습(善行學習)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마치 망망대해에서 먼 거북이가 백 년에 한 번씩 물 위로 머리를 내밀 때, 마침 그 위를 떠다니던 관자의 구멍 속으로 머리를 내밀 확률만큼이나 어렵다고 맹구우목(盲龜遇木)의 비유로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얻기 힘든 귀중한 인간 몸을 받아서 이 사바세계라는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사바세계에 입학하여 부처님이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출세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위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

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공부는 일시적이며 한계가 있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욕망을 채우는 세속적인 공부보다도,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하여 영원히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행한 공부의 결과에 따라서 오취에 윤회하는 중생의 길로 가느냐, 대승보살도의 길로 가느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의 기본은 선근공덕 쌓기 부터

기도 성취는 자리아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대승보살도는 나 혼자만의 이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와 남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자리아타의 삶입니다. 바로 생활속에서 선근공덕(善根功德)을 쌓는 복 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인 칠불통계의 계승에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실천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였듯이 대승의 수행자는 선행을 배무는 청정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대승보살도이며 생활속에서 부처님의 삶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거나 기도수행을 하

거나 먼저 많은 선근공덕을 쌓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공부든 기도수행이든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되고 장애와 곤란을 겪는 것은 업장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선근공덕을 쌓아서 무시이래로 지어온 속세의 업장을 소멸하고, 선근공덕의 힘으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선근공덕이 밀거름이 되어서 지혜의길 해탈·열반의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

니다. 그래서 선근공덕을 열반의 자량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하여 통파하여야 되는, 도 닦는 다섯 단계의 과정을 오위도(五位道)라하여 자량도·가행도·견도·수도·무학도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이 공덕을 쌓는 과정인 자량도(資糧道)입니다.

자량이란 자재와 식량을 뜻 하듯이, 수행의 과정에서 선근공덕을 쌓아 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이 노작돈을 모으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듯이, 집을 짓는 사람이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듯이, 수행

과 기도에서도 준비과정으로 먼저 선행을 실천하여 공덕을 쌓아 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오위도 수행의 첫 관문인 자량도의 수행은 대승보살의 수행덕목인 육바라밀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도

“그대들은 잘 들어라.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육바라밀다의 법을 말하리라. 선남자여, 만약 보살이 되려고 하면, 마땅히 먼저 보시바라밀다를 수행하고, 그렇게 한 후에 이러한 지계·인욕·정진·정려·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야 원만 구족함을 얻게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다라니의 공덕을 성취하려면 육바라밀다의 수행 그중에서도 먼저 보시바라밀다를 수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도가 성취되고 안 되고는 내가 지은 선근공덕에 달려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쌓은 선근공덕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복만을 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성취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자리아타의 대승보살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동참불공을 하면서 독송하는 십선화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덕성취는 참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선근공덕을 지어서 회향하는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업장이 걷히고, 재난이 소멸되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간은 어둡다.

눈먼 사람은 좋은 빛 나쁜 빛과 평지와 높은 언덕을 보지 못한다. 중생들도 이러하여 음(陰), 노(怒), 치(痴)에 덮여있어, 선악의 행을 보지 못하며, 좋고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하고, 희고 검은 법을 알지 못하며, 뜻이 스스로 미혹하여 착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러한 까닭에 세상은 어두운 장님과 같다

(출요경)

▶쇠에서 생긴 녹이

적은 악(惡)이라고 가볍게 여기거나 재앙이 없다고 하지 말라. 방울들이 고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조그만 악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어리석은 자는 악으로 가득 차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를 먹어 들어가듯, 죄짓는 사람의 악한 행동은, 자신을 지옥으로 데려간다.

(법구경)

▶업감윤회(業感輪回)

집착과 분별 때문에 윤회한다.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말씀 드렸다.

“어떠한 인연으로 모든 중생들이 허망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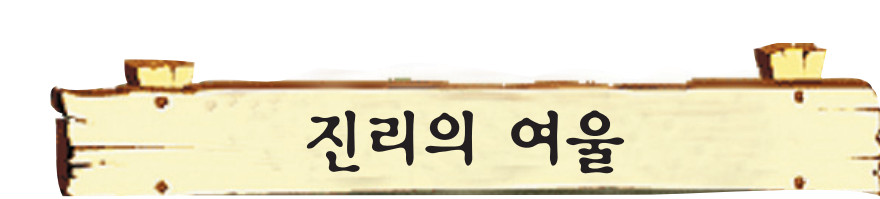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견(我見)을 가진 중생이 허망한 윤회를 받는 것이니, 무슨 깨달인가 하면, 무시(無始) 이래로 계교와 집착을 망령되게 일으켜서 저와 나를 분별한 까닭이요, 어리석은 중생이 허망한 윤회를 받는 것이니, 왜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중생은 최상의 적정법(寂靜法)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삼업(三業)을 경계하여 깨치지 못하고, 몸과 입과 뜻을 방자하게 하여, 못 번뇌로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업을 짓게 되느니라.”

(문수사리문법경)

▶차라리 신명을 잃을지언정

불 보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네 가지 법을 닦고 배워야 할 것



이니, 그 네 가지 법이란, 첫째는 큰 보리심을 일으켜서 차라리 신명(身命)을 잃을지언정 물러나지 아니함이요, 둘째 마땅히 착한 벗을 친근하여 차라리 신명을 잃을지언정 멀리 떨어지지 아니함이요,

셋째는 마땅히 인욕하고 부드럽고 화합함을 닦아서 차라리 신명을 잃을지언정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마땅히 고요한 곳을 가리고 차라리 신명을 잃을지언정 화려하고 시끄러운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모든 선남자야 이러한 네 가지 법을 보살마하살이 마땅히 닦고 배워야 할 것이다.

(화엄경)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보살이 비록 산이나 들에 거처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시끄럽고 번잡하면, 능히 참다운 원리행(遠離行)을 닦고 배우지 못하고, 비록 마을이나 성중(城中)에 산다 하더라도 마음이 고요하면 능히 참다운 원리행을 닦고 배울 것이다. (대반야경)

▶나쁜 말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불타가 왕사성의 교외 죽림정사에 계시던 때의 일이다. 한 바라문이 동쪽 중의 한사 사람이 출가한 것에 격분해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처님은 그나 노발대발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조금 조용해지자 말씀하셨다. “바라문이며 그대 집에도 손님

이 찾아 오는가?” “그렇다 고타마여.” “그 때 그 손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러면 그 음식은 내 것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자 부처님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바라문이며, 그대가 오늘 내 앞에서 했던 나쁜 말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다시 그대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자 바라문은 깊이 깨닫고 자신도 역시 부처님께 출가하여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 한다. (상응부경전)

▶마땅히 성내지 마라

누가 네게 성내어도 성냄으로 갚지 마라. 악에 대해서 악한 마음 내지 않고 마땅히 교만한 마음 없어야 한다. 성내지 않고 해치지 않으면 마땅히 성현이라 부를 수 있다. 악하고 죄가 되고 성내는 이 스스로를 묶는다. 율화가 치밀어도 쉽게 참기란 달리는 마차를 다루는 것 같다. (잡아함경)

▶마음이 탁하면 부처를 보지 못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불자야, 비유하면 해가 돌아 올라서 세간을 널리 비추고 일체 맑은 물 그릇 가운데에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음이 없이 모든 곳에 두루 차서 오고 감이 없지마는, 만일 한 그릇이 깨어지면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 불자야 네 뜻은 어떠한가, 그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해의 허물 이겠느냐?”

“아니옵니다. 그릇이 깨어진 때문이지 해의 허물은 아니옵니다.”

“불자야, 여래의 지혜의 해도 이와 같이 법계에 널리 나타나서 앞뒤가 없이 일체 중생의 맑은 마음 그릇이 항상 맑으면 부처님 품을 항상 볼 것이고, 만약 마음이 탁하고 그릇이 깨어지면 부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화엄경)



2011년도 햇보리자 총지종108염주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원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 수지한 경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잎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구입문의 : 전화 02. 552-1080-3 통리원 또는 총지종 각 사원 주교(총지종 교도에 한하여 1개당 ₩40,000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는 이야기

안타까운 일본의 쓰나미와 원전사고

금년 봄에는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일본지진 관측사상 최대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만이 아니라 지진을 뒤따라 온 쓰나미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다.

지진 해일 경보 발령이 나고 거의 10여분 만에 사람과 동물들 그리고 집과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다. 미처 피할 틈도 없었다. 온 마을을 단숨에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 마을이 순식간에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다. 아마 이날은 일본 역사상 최악의 날이 될 것 같다.

전에도 지진과 해일의 참상을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보았지만 이번처럼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다.

이웃나라의 일이라서 그들의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또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남의 일 같지 않다. 가까운 우리 모임의 한 엄마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아들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밤잠도 설쳐가며 걱정 했는데 무사하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세상을 얻은 듯 기뻐했다. 그는 너무 감사 하라며 우리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산 일도 있다. 엄마의 자식 걱정하는 마음이 잘 들어나 있다.

뒤이어 더 큰 일이 벌어졌다. 후쿠시마 해안가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한다. 인류의 대 재앙이 물려 오는 느낌이다. 원자력발전소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안정화 시키려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참사가 생각난다. 그 때에도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계속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다. 그 고통은 다음 세대 까지도 이어 지고 있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폭발은 체르노빌 보다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관계자들의 해석도 있어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아주 극소량의 방사능 물질이 발견 되었다고 한다 멀리 북극과 시베리아를 돌아 강원도로 왔다고 한다.

일본은 지금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수돗물에서도 검출이 되어 관계당국에서 어린이들에게는 먹이지 말라고 한다. 또 야채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점점 많이 검출 된다고 한다.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먹거리가 오염 되었으니 이것이 인류의 대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어떤 학자들은 일본 당국이 처음부터 제대로 손을 썼으면 이와 같은 재앙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 하고 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감추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방사

능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오히려 자식이나 부모형제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우는 것이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

몇 년 전 어떤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도 생각한다. 2012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 날 것이라는 말. 그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오늘의 일본 사태를 보고 있으니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정말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은근히 걱정이 된다. 일본에서 전해 오는 소식은 우리들을 점점 더 공포 속으로 몰아 가고 있다.

원전 공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나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바닷물도 해류를 따라 이동하여 전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킬 것 같고 또 물고기들이 여기 저기 헤엄쳐 다닐 텐데 꼭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해조류나 물고기는 먹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우리 어른들 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걱정이다. 이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될 것인지 시름이 깊어 진다.

요즘 날씨도 덩달아 촉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봄은 벌써 왔다고 하는데 날씨는 겨울과 봄을 왔다 갔다 한다. 또 봄비가 오는가 하면 눈이 펄펄 내린다. 심란한 우리들 마음을 더욱 가라앉게 한다.

그래도 봄은 우리 곁에 다가와 손짓을 하고 있다. 내가 왔으니 빨리 봐 달라고 눈을 맞추고 있다. 우리 나라도 그들을 돕는데 전 국민이 함께 힘을 합치고 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먼나라 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 그래도 역시 이웃 사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일을 통해 일본 사람들의 질서 의식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점점 의아해 진다. 물론 출서기 같은 질서는 찬사를 받아야 하지만 가족이 희생 되었는 데 어떻게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 것인가? 또

- 박모정 -

쓰나미 (기상학) [津波, tsunami]

지진성 해일(seismic sea wave), 조석파(tidal wave)라고도 함. 주로 해저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해일파.

쓰나미를 일으키는 해저지진은 해양지각 아래 50km 이내의 깊이에서 발생하며, 강도는 리히터 척도로 6.5 이상이다. 쓰나미는 해저 사태(海底沙汰)나 연안사태(沿岸沙汰) 또는 화산폭발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지진이나 다른 충격이 가해진 후 단순하고 점진적인 진동파(振動波)의 여파는, 마치 얇은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진동파가 수면 위로 점차 큰 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듯이 해수면 위의 먼 거리까지 전파해간다. 심해에서의 파장은 100~200km로 매우 길지만, 파고는 0.3~0.6m로 매우 낮다. 이러한 매우 낮은 파형기울기와 더불어 5분에서 1시간에 달하는

파의 긴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풍랑과 너울에 의해 생긴 파와 식별이 어렵다. 따라서 쓰나미가 통과할 때, 망망대해 위에 놓인 표층수 입자나 배는 5분에서 1시간 주기로 30~60cm 정도의 약한 상승과 하강을 하게 된다.

tsunami는 지진과 지진 해일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tsu는 항구(harbor)를 의미하고, nami는 파도(wave)를 의미한다. 즉, tsunami는 항구로 밀려오는 파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표기할 때는 '쓰나미'로 표기하지만, 영어 발음은 '츠나미'에 가깝다

불교설화 <54>

재미있는 12간지 이야기

12띠(동물)설화

우리가 해마다 정하는 띠 동물은 12가지로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는 전통 설화에 기인합니다.

아득한 옛날 하늘나라 대왕(大王)이 동물들에게 지위를 주고자 하였는데 그 선발 기준을 두고 고민하던 중, 정월 초하루에 제일 먼저 천상(天上)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지위를 주겠노라고 동물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짐승들은 저마다 기뻐하며 빨리 도착해서 높은 지위를 부여받고자 파나는 혼란을 하였습니

다. 그래서 피를 내어 믿음직하고 튼튼한 소의 등에 타고 가리라 마음먹었습니

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쥐는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었습니다. 다리로 짧고 날개도 없으며 덩치도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내어 믿음직하고 튼튼한 소의 등에 타고 가리라 마음먹었습니

다. 정월 초하루가 되어 동물들은 앞다투어 천상(天上)의 문을 열고 달려왔는데 소가 부지런하여 제일 먼저 도착하였습니

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소의 등에 타고있던 쥐란 놈이 뛰어 내리면서 소의 앞에 서게 되어 일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직한 소는 분했지만 1등의 자리를 쥐에게 내어 줘야만 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늘나라 천왕(天王)은 천상에 도착한 동물들에게 차례대로 순서를 매겨서 땅의 기준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12띠 동물입니다.

이 12띠 동물 중에 우리와 친숙한 고양이는 빠져있습니다.

민첩하고 날쌔 쥐를 찾아가 물었고 쥐가 그 연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보다 훨씬 빠른 고양이에게 뒤질 것을 두려워한 쥐는 피를 내었습니다. 도착 날짜를 정월 초이를 날이라고 속였습니

다. 쥐의 말을 믿은 고양이가 열심히 달려 정

월 초이를 날 일등으로 도착했지만, 이미 하루 전에 동물들의 등수가 정해졌고 대화는 끝난 후였습니다.

속은 것을 안 고양이는 이때부터 쥐에 대해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쥐는 고양이만 보면 숨을 곳을 찾고 고양이는 그 원한을 갚기 위해 구석 구석 쥐를 찾아 다니는 관계가 되었다.

<60갑자로 연대 알아보기>

1. 서기연도를 60갑자로 나타내기 국사를 공부하다보면 여러가지 사건을 60 갑자로 임진왜란, 갑오경장, 갑신정변, 등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난 사건의 순서를 외우는 일은 상당히 혼돈될 때가 많이 있다.

서기연도를 60갑자로 쉽게 나타낼 수 있으면 외우는데 수월할 것이다.

60갑자는 천간(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지지(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를 조합해서 만든다.

먼저 천간을 서기연도의 끝자리로 대응시켜보

면, 갑-4, 을-5, 병-6, 정-7, 무-8, 기-9, 경-0, 신-1, 임-2, 계-3

간단히 갑4로 외우고 있으면 편리하다.

지지를 서기연도를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대응시켜보면,자-4, 축-5, 인-6, 묘-7, 진-8, 사-9, 오-10, 미-11, 신-0, 유-1, 술-2, 해-3 간단히 자4로 외우고 있으면 편리하다.

올해는 2011년. 끝자리가 1이니가 천간은 신, 2011을 12로 나눈 나머지는 7이니가 지지는 묘, 2011년은 신묘년이다.

이제 1592년을 60갑자로 나타내어보자 먼저 끝자리가 2 이므로 천간은 임이다 1592를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8 이므로 지지는 진이다.

따라서 1592년은 임진년,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이다.

2002 월드컵의 해 2002년은 60갑자로 하면 무순해 일가 끝자리가 2이므로 천간은 임 이다.

2002을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10 이므로 지지는 오이다.

따라서 2002년은 임오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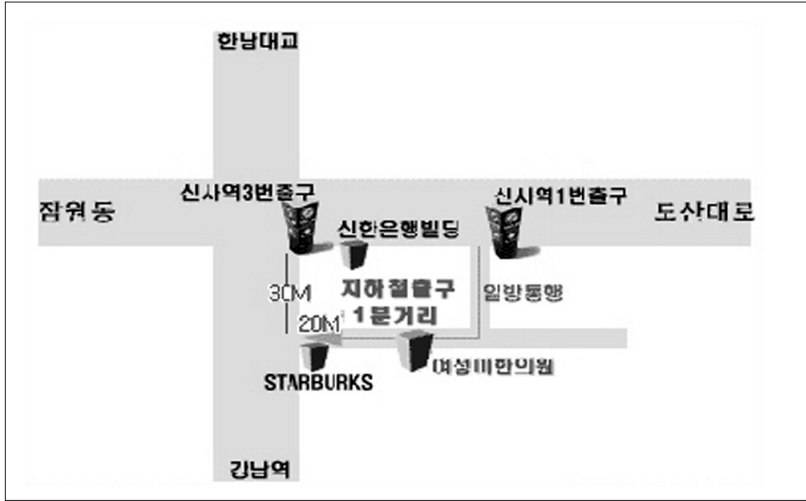
- 실밀화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의 상담"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자궁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날마다 좋은날

자기 분수에 맞게 살며, 선업을 짓자

법 상 인 (자식사)

어떤 사람이 세속이 싫어 절에 들어갔다.
절에서 사니까 그 생활 역시 만만치가 않았다.

잠은 때가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려고 하니 힘들어서 이 생활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들이 다 주무시는 아밤에 산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왔다.

마침 어느 마을에 도착하자 어느 부부가 싸우는 광경을 보았는데, 옷 보파리를 담너머로 던지며, 마누라를 쫓아내고 우는 아이들을 때렸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세속보다는 절이 좋겠다고 여겼다.

도망쳐 나올 때는 다시 안 돌아간다고 나왔는데 부부간에 싸우고 아이를 때리고 하는 것을 보고 '아! 다 자기 것 이구나. 나도 내 것이구나.' 느끼며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다 내 것 이구나' 하고 받아들였다.

다시 절로 돌아가서 열심히 수행하였고, 세월이 지나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

어느 날 보살 한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스님
“예”

“스님, 저는 팔자를 고치고 싶습니다.”

“팔자를 고쳐서 잘 살겠습니까? 보살님, 팔자가 아니라 칠자도 못하고 치렀는데요.”

“스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꼭 팔자를 고쳐야 합니다.”

“보살님, 내일 보파리 싸서 절로 들어 오세요.”

“무엇 때문에 이산속에 옵니까?”

“당신을 숨겨 주려고 그러니까. 남편과 이혼했지요?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나지 마세요”

보살은 남편이 술주정뱅이고 게을렀으며 바라보고 살려니 가슴이 답답하고 앞길에 캄캄해서 이혼했다.

여자나 남자나 살다가 싫다고 그만두면, 그보다 더 못한 곳으로 갈 수 있다.

업을 지으면 그 업을 받아야 된

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고 살아야 되며, 누구나 다 자기분수를 넘으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앞에 오는 것은 내 것이다 받아들이고 탐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노력 없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자기보다 앞서면 질투하고, 허물 보고, 명 씌우고, 사기도 치고 부모 형제도 죽이는 험악한 세상 그야말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 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진심도 내고 때리기도 하고 남 밟그릇 쳐다 보고 내 밟그릇 작다고 사랑하는 자식마음에 상처 주기도하고 남한테 못할 짓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내 자식 밟그릇이 청소부 할 정도 밖에 안 되면 청소 하면서 살면 어떻습니까?

청소 일 하면서도 부모 잘 모시고 오순도순 사이 좋게 지내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인데 이름 하나 얻으려고 남을 해치고 짓 밟고 올라가더라도 그 자리에 오래 못 갑니다.

가 선하게 하면 언젠가는 상대가 그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떳떳하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릴 리가 없고 나무가 튼튼하면 비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몰아치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반대로 뿌리가 깊지 못하면 뿌리채 뽑혀 버리듯 부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은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안 주십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릇이 되어야 되며,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우리는 딴 소리하고 딴 짓 하고 딴 곳을 보고 있는데 무엇을 주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

아름다운 마음 남을 이해하고 배려 할 줄 아는 사람. 남의 허물 덮어주고 감사 줄 수 있는 마음, 돈으로 복 짓는 것도 좋지마는 돈은 들어오면 사기도 당할 수 있고 나쁜 데로 빠져 나갈 수도 있고 돈은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좋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현신하는 사람,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전부 다 뽐내는 사람, 나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으면서 남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없어서 못해 주어도 마음으로 베풀고 끝 없이 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은 진주 보다 더 좋은 보배이며, 이런 선한 마음을 자기가 다 뽐아 낸 것을 다 받아들이면 한량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도둑질 해 가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해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배입니다.

그것 만큼 아름다운 보시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준비된 마음 아닐까요.



포항 수인사 특약전 아미타 삼존불

상에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입니다. 이 세상 올 때 걸은 발가벗고 오고 갈 때는 옷을 걸치고 갑니다. 맨몸으로 오는 이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기 때문이지요. 살다가 보면 탐심으로 인하여 상도 내고 허물도 보고 사기도 치고 살인도 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그 더러운 마음으로 부끄러워서 못가니까 다 덮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 짓고 잘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제일 큰 죄는 탐심 즉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이 청소부 할 제목 밖에 안되는 자식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오만 투자를 다 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비록 상대가 악하게 하더라도 내

또 거기서 오는 풍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감옥가고 자살하고 등등의 사연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 살면 그것만큼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형편에 맞추어 살아야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절에 다녀도 보살다운 행을 못한다면 그 다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자비심을 내고, 선을 베풀면 좋은 일이 오게 되어 있으며, 길이면 가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거든 듣고 말이 아니거든 듣지 마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내 하기 달려 있습니다.

비록 상대가 악하게 하더라도 내

우리들 이야기

자신의 기준으로

그대의 의심은 그대 안의 우물 개구리에게서 나온다.
누구도 그대보다 클 수 없고,
누구도 그대보다 높을 수 없으며,
누구도 그대보다 도의 사람일 수 없다.

살아 가면서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때가 많다.
우물안의 개구리 처럼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부리는 것도
자기 아상을 버리지 못하는것에서
나오는 탐심이 아니겠는가...
잠깐이라도 남의 입장 부터 배려 할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겠다
이 봄에는.....

혜덕화(총지사)



이달의 추천도서

영어가 속속 자라는 자타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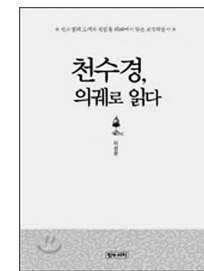
천수경, 의궤로 읽다

우천 이성운 저 | 정우서적

쿠루네고다 피아티싸 저/
이추경 역 | 불광출판사



부처님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주신 이야기 선물 이슬 우화와 아라비안나이트의 뿌리가 된 자타카 이야기.
'자타카(jataka)'는 '현생에 태어나기 전까지의 전생 이야기'라는 뜻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무수한 과거 생을 보살로 사시면서 수행하고 공덕을 닦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행복의 샘』에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547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16편의 이야기를 골라 영어 원문과 우리말 번역문을 함께 실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이야기들을 읽는 동안 정직, 인내, 사랑, 사려 깊은, 용기, 지혜 등 꼭 길러야 하는 가치들을 배우고, 큰 꿈을 꾸며 자라날 것이다



한국불교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된 천수경은 불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염송하는 경전이며, 국내의 여러 의례에 널리 쓰이는 의례서이기도 하다.
『천수경, 의궤로 읽다』는 천수경 형성과정을 원초 의궤를 일별하며 밝혀낸다. 또, 천수경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 조직되고 쓰이게 되었는지 조목조목 설명한다. 본서는 기존 천수경 해설서들이 천수경을 완결성을 지닌 한국 불교 경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데 반해, 천수경 속의 내용드링 역사적으로 적층되었고 의궤라는 시공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의궤라는 것은 그 의례가 행해지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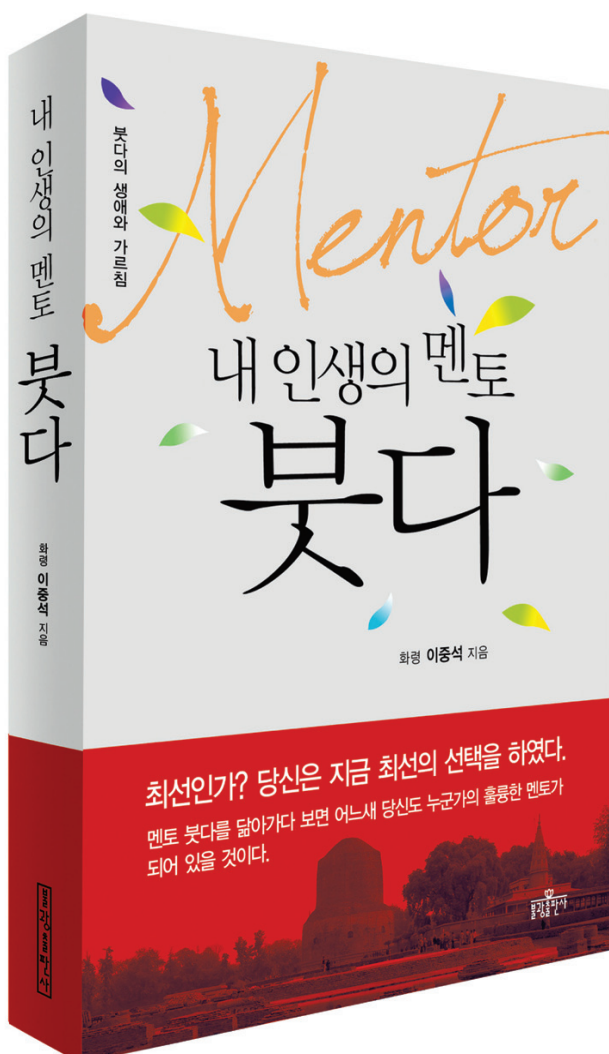


불교상식

불교총지종(佛敎總指宗)이란

‘총지’라는 말은 총지(總持)와 지도(指導)의 합성어이다. ‘총지’는 다라니 즉 진언이라는 뜻이다. ‘옴마니반메훔’을 본존으로 하는 종단이며 ‘대승장엄보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밀교종단이다.

‘지도’의 뜻은 중생들에게 밀교의 비법을 지도하여 즉신성불과 가지성취법(加持成就法)을 터득케 한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다라니비법으로 중생을 지도하는 밀교종단이다.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자라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최선인가?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닮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화령 이중석 지음
432면 | 18,000원

내 인생의 멘토 붓다

총지중 인선 총무부장 연속 회의 참석

종단협 ·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에서 의견 나누어



▲ 인선 총무부장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인건을 검토하고 있다.

불교 총지중의 인선 총무부장은 지성 통리원장을 대리하여 3월 24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제1차 상임이사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예비회의 건에 대하여 4월 11일~13일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 본 대회는 10월 중 강원도 낙산사에서 개최된다. 불기 2555년에 열리는 봉축행사를 봉축위원회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종단협 소속의 중

단은 각각의 분담금을 배정하였다. 또한 일본 대지진 피해 지원 논의 건에 대하여 종단별로 성금을 배정했으며 총지중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한불교정토종’과 ‘대한불

교법연중’의 신규회원가입 관련하여 개최된 9인심의위원회에서는 초과일 이후 해당종단을 방문하여 실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9인심의위원회 위원구성원 중에 종단협 상임이사 지성 통리원장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에도 인선 총무부장이 참석하였다. 이사회는 성금 모금과 함께 지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위령제를 봉행기로 했다.

장소와 날짜 결정은 회장단에 위임했으며, 소요 비용은 별도로 모금하기로 했다. 또 당초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천대종 서울관문사에서 열기로 했던 제32차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는 올 가을 경으로 연기해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5월 5일 부산 용두산 공원에서 실시하는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제5차 무차만발공양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천안함 호국장병 추모 1주기 추모재 봉행 부산불교연합회에서 위령대제



▲ 천안함 호국장병 1주기 추모위령대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스님)는 천안함 사건 1주기를 맞아 3월26일 부산 시청 뒤편 녹음광장에서 천안함 호국장병 1주기 추모 위령대제를 올렸다.

추모대제에 참석한 사부대중 500여 명은 불의의 사고로 순국한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남북의 화합을 기원했다. 추모대제는 부산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의 영산재와 부산염불공양모임 회원들의 육법공양, 내빈들의 헌화 및 헌향 순으로 진행됐다.

정여스님은 법어를 통해 46명의 전몰장병들과 함께 희생자를 인양하다 함께 산화한 지난해 불자대상 수상자 고 한주호 준위의 보살행을 기렸다. 정여스님은 법어에서 “천안함 호국장병 46위와 고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희생은 한민족 모두의 마음에 가슴 아픈 일로 새겨져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호국장병들 모두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 추모했다.

한편 상임부회장 정각스님이 낭독한 ‘북한

동포에 드리는 평화의 메시지’에는 장병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과 북이 다시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담았다.

정각스님은 메시지에서 “하루 속히 남북 간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백두는 한라를 노래하고 한라는 백두를 노래하며 한민족 번영과 통일의 새날을 함께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불교 · 스님’ 신뢰도 70%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설문조사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 스님)는 3월 29일 서울 경지동 연구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가 담긴 ‘불교 및 승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18일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불교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67.7%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스님에 대한 신뢰도와 청렴도’도 각각 68.2%·6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불교인은 정직하다’·‘불교에 호감 있다’라는 질문에서는 ‘동의한다(68.2%·65.1%)’가 ‘동의안한다(30.3%·32.9%)’는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또 국민 10명 중 6.7명이 “우리사회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높다”고 생각했다.

‘스님의 사회적 전문성’과 ‘스님의 사회 현안에 대한 영향력’

에 대한 질문에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7%와 49.7%만이 ‘높다’고 응답했다. ‘불교는 보수적이다’·‘불교는 권위주의적이다’라는 질문에서도 각각 74.5%와 50.1%가 ‘그렇다’고 밝혔다. 특히 60.3%가 ‘불교는 이익집단화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스님들의 위상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욱이 이익집단화·보수성 등 불교 내부적으로 제기돼 온 부정적 측면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어 시급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스님과 불교에 대한 신뢰도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청·장년 화이트칼라 계층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포교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세대교체와 함께 불교가 현재의 위상을 상실하고 빠르게 쇠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불청,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펼친다

특정 종교 강요 비방 · 선전 방해 종교차별 금지



▲ 대불청 정우식 회장이 ‘서울학생종교인권 조례 제정’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한불교청년회는(회장 정우식) 3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불청은 특정 종교 강요 방지를 위한 ‘학생종교인권 조례 제정’ 서명운동에 동참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불청은 회견문을 발표하고 “종교와 양심 및 사상 자유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척도가 되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모든 종교 시민단체와 연대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주민발의를 통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추

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학생인권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은 학생인권조례서울운동본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 왔다.

오는 4월26일까지 서울시민 유권자의 약 1%에 해당하는 약 8만1885명이 동참해야 주민발의가 가능하다. 운동본부는 지난 5개월 간 서명에 동참한 유권자는 2만여 명이 동참했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 신흥고에서 신입생들과 학부모에게 기독교 교육프로그램 참석 강요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는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는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행위 강요 금지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행위 금지 △특정종교 비방 및 선전 금지 등 학교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이 학생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태고종 임시총회서 종헌종법개정

총무원장 4년 단임제로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총회는 3월 30일 서울 사간동 전승관 3층 대법당에서 제105회 임시중앙총회를 열고, 총무원장 권한을 축소 하는 종헌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총무원 부원장 선출안과 부장 인준안은 부결되었다.

이날 개정된 종헌 개정안은 총무원장 임기를 4년 중임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꾼다. 총무원장 선거 제도가 종전의 중앙총회에서 선

출하던 방식에서 중앙총회의원과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하고, 선거인단은 30개 사찰당 1명씩 지방교구에서 선임기로 했다. 종회는 총무원 부원장 선출안과 각 부장 인준안을 부결시키고, 종단현안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중앙총회 차원의 ‘종단현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대은(전 중앙총회 부의장) 스님을 선출했다.

진각종, 이동지원사업 추가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혜정정사)은 3월 24일 진각종 행원심인당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환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사업(응급환자 이송사업)을 하는 내용의 정관을 개정했다.

진각복지재단은 앞으로 산하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진각 홈케어, 재가노인요양센터 등의 응급환자 뿐만 아니

라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차별화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진각복지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환자 이송을 위해 대중교통이나 사설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등 환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 정관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신 의
성 실
정 직
교 목 보리수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낙산공원에서 봄을 맞이하다

총지문화답사팀 낙산성곽길 다녀와



▲ 총지문화답사팀이 낙산 성곽길을 산행했으며, 뒷편에 해화문이 보인다.

총지문화답사팀이 3월 26일 서울 성곽길의 일부인 동대문 성곽공원(흥인지문)에서 해화문까지 걸으며 봄을 맞이하였다. 최근에 복원된 성곽길은 한적하였으며, 얼마 안되는 정상까지는 70-80년대 집부터 현재의 아파트까지 개발전, 후의 동네가 어우러져 있었다.

낙산공원에서 바라보는 서울 전경은 새롭게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남산과 인왕산, 창경궁과 종로의 빌딩들이 아담하게 펼쳐져 있었다. 또한 미아리 방면의 작은 집들은 이 한교무, 배공주교무가 동행했다.

아파트 숲으로 변해 있었다. 해화문은 도로 건너편에 있는데 육교로 연결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답사팀은 법정스님이 계셨던 길상사를 방문하여 명상의 길을 걸으며 봄을 만끽했으며, 이어 와룡공원에서 숙정문을 거쳐 북악 팔각정 정상까지 등산도 하였다.

한편, 산행은 이연수 보살, 이주희 보살(이상 밀인사), 김정숙 보살(법천사), 양재범 각자(벽룡사), 이인성 각자, 박정희 보살, 최영해 보살(이상 총지사), 화령정사, 서강시무, 보정, 박종미 예전에 없어지고 그 자리엔

신인록 회장 재선출, 이상록 총무 선출

신정희 부산·경남 지회



▲ 신인록 회장이 보시한 정각사 간판이 밤에 빛을 내고 있다.

신정희 부산·경남지회는 3월 13일 정각사에서 신인록 지회장을 회장에 재 선출하였다.

신정희 총무에는 이상록 보살(정각사)이 선출되어 앞으로 활동이 기대된다. 신인록 지회장은 정각사 간판을 보시하여 밤에도 사원을 환하게 비추어 포교에 일익을 주었다. 부산·경남 신정희

는 각 사원의 어려운 보살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있으며, 3개월에 한번씩 불우이웃 돕기를 몇 년째 계속해오고 있다. 정각사 교도들은 전반기 불공을 회향한 후 4월 13일(수) 전북 고창 선운사로 야외법회를 겸한 봄 나들이 간다. 선운사 경내의 활판된 동백나무 꽃도 볼 예정이며, 죽세의 고장 담양에 들려 대나무 숲이 아름다운 죽녹원도 걷는다. 한편, 부산·경남 바라밀 합창단은 정각사 전순열 보살의 49재를 맞아 정성을 모아 재를 올리고 음성공양을 보시했다.

영남지역 통신원 임원

김정애 회장, 한미옥 총무 선출



▲ 영남지역 통신원들이 화령정사, 도현정사와 함께 정각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부산·경남 교구 및 대구·경북 교구의 통신원들이 3월 12일 부산 정각사(주교 대원)에서 첫 모임을 갖고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은 김정애 보살(정각사), 총무는 한미옥(정각사) 보살이 각각 선출되었다. 김정애 회장은 “소속 사찰과 관련된 기사를 종보에 내어 포교와 교도화합에 앞장서서”고 영남지역 통신

원에게 말했다. 화령 정사는 “통신원들이 전국적으로 임원을 구성하여 활기찬 통신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신원들은 식사를 가졌으며, 정각사 휴게실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한편, 통신원 모임에는 대원 정사, 도현 정사, 정인화 전수도 배석했으며, 영남지역 통신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황승욱 교도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

영예의 대상에 선정



▲ 황승욱 도예가가 불가마를 응시하고 있다.

황승욱 교도(우승 전 통리원장 차남)가 문경에서 열린 제8회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에 선정됐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황승욱 교도는 1998년부터 전국도예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경 찻사발 공모대전에는 2009년 은상 수상, 2010년 특선 수상에 이어 3년 만에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동안 도자기를 빚고 있으며 옛 선조들이 구운 방식 그대로 굽는 전통 도예가이다.

황승욱 교도는 불교와 생활에

대하여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의 도량에서 자라나서 부처님을 늘 공경하고 있으며, 도자기를 구울 때 내 물건이 아니라 남을 위해 만드는 도자기이므로 ‘옴 마니반메훔’ 기도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한국의 전통적 도자기를 더욱 발전시켜서 만들고, 외국에 전시관을 열어 한국 전통도자기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2011 문경 전통찻사발축제에는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문경새재에서 개최되며 시상은 5월 8일 주공연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제2의 인생” 스마일 박영자 교도

주위의 이웃에게 아름다운 봉사를 하고 라디오를 통해 정감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관성사 박영자 보살(70세)의 활기차고 바쁜 생활을 들여보았다.

- 안녕하세요. 보살님 마포 라디오방송국(100.7MHz)에서 행복한 하루MC를 맡고 계시죠. 어떤 프로그램 입니까?

▶ 방송국 생활을 5년째 하고 있어요.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6080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옛 추억의 노래를 들려주며, 희망의 메시지와 좋은 글과 시를 읽어주고, 건강 상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 프로그램 준비하려면 무척 바쁘시겠어요.

▶ 주로 옛날노래에 가끔은 신세대 노래도 들려주어요. 좋은 글을 읽어주기 위해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 스승님에게 들은 법문 내용도 적고, 종조법설집, 불교충전의 글도 적지요. 한의학 박사와 인터뷰도 하고 구현동화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 성우들에게 배우기도 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기도 하지만 항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 방송국 일이 끝나면 무엇을 하니까?

▶ 자유의 집, 만남의 집에서 아이들에게 구현동화를 들려주고 있어요. 또 맞벌이가정에 부모가 늦게 귀가할 때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합니다. 월~금요일 까지 오카리나와 하모니카도 배우고요.

- 무척 바쁘십니다. 다른 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면서요?

▶ 지역 주민을 위해 방송국에 계신 분들과 봉사활동도 하고 양로원에 방문하여 할머니 안마도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 보살님 정신없이 바쁩니다. 라디오방송국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 제가 공무원생활을 은퇴하고 각자님 일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무료했어요. 어느 날 ‘나’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시험도 보고, 요양원자격증도 땀어요. 남을 돕는 것에 저의 인생을 찾았으며, 보람을 느낍니다.

- 보살님 별명이 ‘스마일 보살님’이라 들어요.



▲ 관성사 박영자 교도

▶ ‘방글이’라고도 해요. 사람에게 굳은 인상보다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웃어서 그런가 봅니다. 각자님에게도 일찍 들어오라는 말보다도 ‘3번만 웃어요.’ 하고 말합니다. (각자님하고 정기여행은 꼭 간다고 했다.)

- 바쁘신데 불공은 언제 하니까?

▶ 새벽불공은 반드시 합니다. 자성일에 서원당은 집안행사 외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에서 배운 것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이 곧 부처님 공전이다.’라고 생각하며 시간은 부족하지만 장소구분 없이 불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보살님은 총지종 마니합창단과 연희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 보살님의 꿈과 보람은 무엇인가요?

▶ 하버드 대학을 아세요?

- 미국의 대학교 말씀입니까?

▶ 하버드 대학(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것), 동경 대학(동네 경로당에 있는 것), 방콕 대학(집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남을 위해 살아 갈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듣는 이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물질적보다도 웃음으로 보시하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만족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 보살님 항상 건강하시고 늘 이웃에게 웃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박종한 기자〉

서울 밀인사 이연수 교도

외손자 서울대 공학계열 합격

밀인사(주교 원당정사) 이연수 교도(마니 합창단 전 단장)의 외손자인 김재범 군이 서울대 공학계열에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가 되었다.

이연수 교도는 작년 한해 전반기 자녀 잘되기 49일 불공과 백일기도로 정진했었다. 김군의 어머님은 아들의 합격을 위해 항상 집에서 불공을 해왔다. 김군은

서울 서라벌 고교를 졸업했으며, 수험공부를 인터넷 강의인 교육방송을 중점적으로 들으며 공부했으며, 다음날 수업을 위해 충분한 수면을 가졌었다. 김군은 산업공학을 전공할 예정이다. 한편 밀인사 모심해전수는 사원내 교도들의 자녀와 손자가 모두 4년제 대학에 합격하여 부처님의 가피력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바라밀지역아동센터

바라밀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을 통합적으로 보호하여 질 높은 복지와 교육의 장으로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아동,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일반가정

●프로그램

- 보호프로그램 :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지도
- 교육프로그램 : 학습(국어, 영어, 수학, 독서지도, 기초학습지도)
- 문화프로그램 :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문화 활동(영화, 연극, 뮤지컬)
- 복지프로그램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 지역자원연계 : 결연후원, 지역 내 인적·물적 지원연결

●따뜻한 후원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학습지원비 및 문화활동(견학 및 캠프)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의 후원자가 되시면 후원금에 대한 세금감면 및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 후원문의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김수경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8-8 정각사 내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전화 : 051)552-0705

팩스 : 051)552-0704

풍경소리

인생의 일기



더욱 건강하고 알차게 됩니다.
흐린 구비를 돌 때,
맑고 개인 구비를 생각하며
땅에서 넘어진 사람들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합니다.

삼일은 춤과 사
일은 파스한
삼한사온의 겨
울 날씨처럼
우리들 인생도
그와같이
행복과 불행한
날들이 번갈아 듭
니다.
두가닥 새끼줄
이 같은 굵기로
꼬여야 튼실한
것처럼
인생살이도 고
통과 기쁨이 섞여
서

장용철/시인

세상은 거대한 거울입니다



잠깐만 자비에 대해 명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그 마음을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로 넓혀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나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속삭이면서 세상에 자비가
가득찬 광경을 그려 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거울입니다.
당신이 환한 웃음을 띠고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도 당신의 환한 미소를 되돌려 줍니다.

최정희 / 불교언론인 -이선 티틀라 스님 말
씀 중에서

여기에 의지(依支)할 뿐이다



옛날 전염병이 든 사람이 있었는데
살이 썩어 문드러져 심한 악취가 나.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은 코를 싸 쥔 정도였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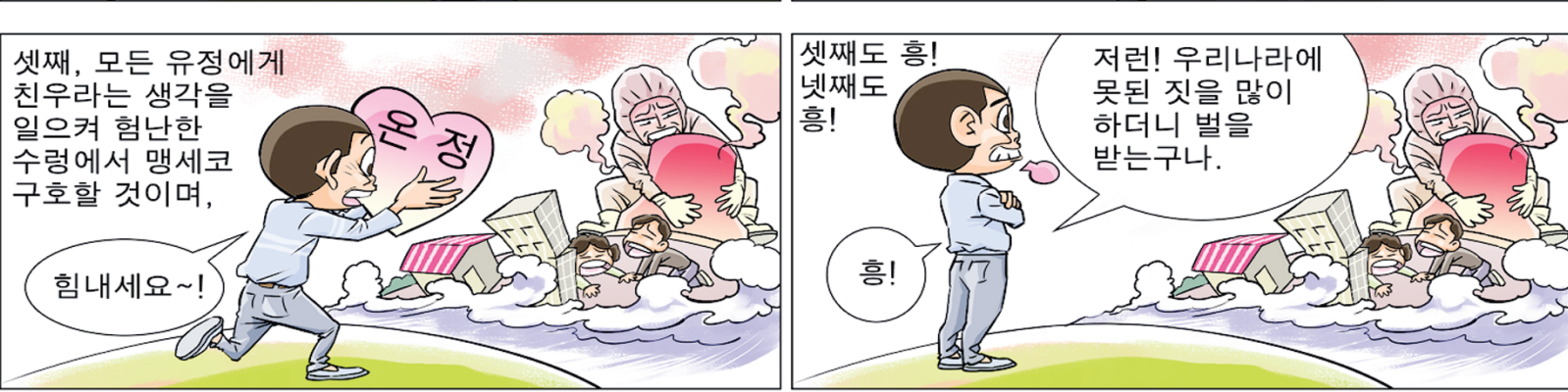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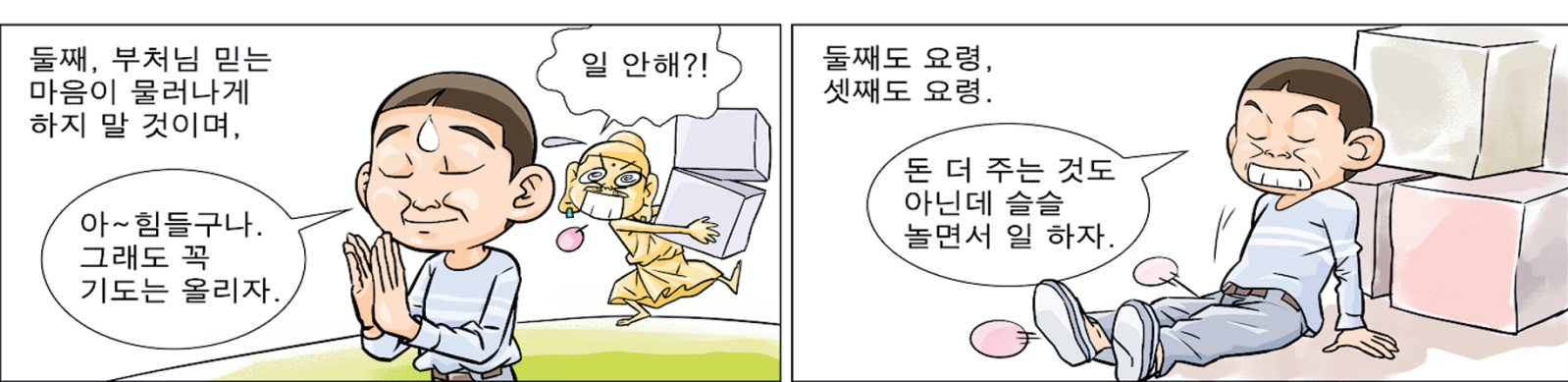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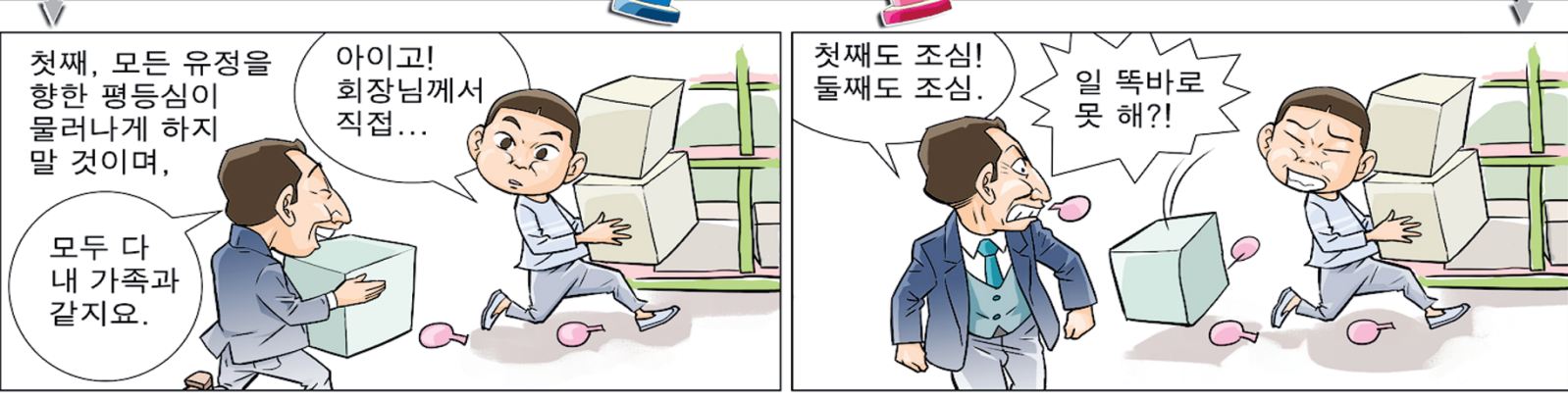
성품이 인자한 스님이 있어 그를 위해 필요
한 것들을 갖다 주면서
항상 보통 사람 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
았습니다.

때때로 같은 음식에 음식을 먹고 옷을 기워
주고 빨래도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겨
“그 사람을 평범하게 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하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
다.

“향기와 악취는 마음으로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내 어찌 마음을 돌로 나누겠는가? 여
기에 의지할 뿐이다.”

치문송행록(轡門崇行錄) 中에서



내용참조: “불교총전” 87p

이달의 사진



조국

**조국은 천안함 장병들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 천안함 장병 추모 1주기 -

한국불교사진협회
경남지부 김인규 지부장
사진제공

새움디자인은

건축설계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의 조직을 취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바탕으로 한 인테리어 영역까지의 확장이기에,

장식적인 접근보다는 철저한 기능위주의 과정을 거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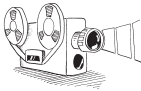
그 공간이 지녀야 할 표정을 부여하는

“감성적 모더니즘” 을 추구합니다.



SAE UM DESIGN
ARCHITECTURE / INTERIORS

중합건축사사무소 새움디자인
새움디자인 인테리어



영화에서 불교보기 ⑨ / 유영철 사건을 소재로한 <추격자>

악마에게도 불성이 있을까?

‘살인자에게도 불성이 있을까?’ 부유층 노인과 윤락업에 종사하는 여성 등 모두 21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여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영철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 <추격자>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의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이 우문이라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삼라만상 모든 존재에 불성이 있다고 2천5백 년 전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 개유불성(一切衆生皆有佛性)’을 통해서 유영철도 영화의 주인공도 분명 불성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니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화를 보면서 부처님의 말씀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부처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괴물은 뱀속까지 괴물이고 살인자는 절대로 인간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와 부처님의 말씀은 충돌하는 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악마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한다면, 영화는 악마는 영원히 악일 뿐이라고, 악마가 착해지는 일 같은 건 일어날 수 없다고, 부처님과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기에 영화를 보면서 혼란을 겪은 것입니다.

나홍진감독의 <추격자>(2008)에는 영민(하정우)이라는 살인자가 나옵니다. 그가 경찰서에서 자백할 때 보인 모습은 그의 성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13명 죽였다고 자백할 때 보인 태도는, 마치 무용담을 털어놓는 아이의 모습처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가 13명의 사람을 죽였지만 그의 엄청난 과거가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뜻이고, 이는 결국 그가 사람 죽이는 일을 파리 한 마리 때려잡는 것처럼 하찮게 생각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영민의 의식 속에는 사람의 목숨에 대한 존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영민의 문제는,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는 도덕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걸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더라도 인간의 고유한 특성 중의 하나인 자비심만 있어도 결코 이런 일은 저지르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자비심이 없었습니다.

▶ 자비심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귀한 특성

영민이 주로 죽인 사람은 출장 안 마소(보도방) 여종업원들이었습니다. 영민은 그녀들의 머리에 정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 속에서 만족을 얻은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두려움을 지켜보면서 영민을 느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처럼 메마르고 삭막한 영민의 마음은, 엉뚱하게도 상대방의 고통을 통해서 만족을 얻은 것입니다.

자비심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특성인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그가 겉모습은 인간이지만 정신은 동물에 더 가깝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영화에는 이런 종류의 인면수심의 인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양들의 침묵>을 필두로 타란티노 감독의 출세작 <저수지의 개들>의 미스터 브론도, 코엔형제의 최고작 <파고>의 유괴범 게이어 등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사람을 해하는 미스터 브론도의 살인 목적은, 살인이 그저 유희에 가까웠고, 게이어 또한 텔레비전 보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추격자>의 영민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만족의 도구로서 사람의 목숨이 이용됐던 것입니다.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는 만족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댓가를 요구하기에,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참된 참회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 영민은 생명존중의 도덕의식이 없어

지금까지 <추격자>의 영민을 통해서 일반적인 악마의 특성을 살펴보면, 생명존중이라는 도덕의식이 없고, 인간의 특성인 자비심이 없는 것까지는 거의 동물에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특성인 아집에 사로잡혀서 오직 본능적 쾌락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동물과도 비교가 안 되는 모습이지요. 적어도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살생을 하지 쾌락을 위해서 살생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악마에 가까운 영민을 불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가 개과천생하는 일은 꿈에서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삼라만상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민에게서 어떻게 불성을 발견해야 하는 걸까요? 이는 바위에서 나무의 특성을 찾아내는 것만큼이나 아주 어렵고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는데,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한다면 영민처럼 취미로 사람을 죽이는, 악마와 다름없는 종류의 인간들에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 또한 희망을 주는 동시에 절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악마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처님이 출현해야 가능하기에 또한 편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 부처님은 앙굴리마라 같은 악인에게도 깨달음을 주어

부처님 시대에도 사람을 99명이나

죽인 회대의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죽이려했던 이 살인마의 이름은 앙굴리마라입니다. <추격자>의 영민이 죽인 사람 21명이니 그는 영민을 능가하는 살인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고, 광기에 사로잡힌 앙굴리마라를 피해 사람들은 밖으로 마음 놓고 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의 존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자와 부처님의 만남은 꽤 극적이었습니다. 살인자는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을 더 죽여 100명의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마지막 희생자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잡기 위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부처님을 따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에게서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 전에 멈추었다. 그런데 너는 멈추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상했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면서 멈추었다고 하고, 오히려 자신더러 멈추라고 하는 사문이 참으로 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앙굴리마라에게 다음 설법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탐진치를 멈추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탐욕과 살기에 사로잡혀 있다.”

‘앙굴리마라’는 누구인가

회대의 살인마였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참회하여 가르침을 받아

앙굴리마라는 원래 코살라국 파세나디왕의 왕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각가, 어머니는 만파니였다. 그의 이름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을 지닌 아힘사까였다. 아버지는 아힘사까에게 학문과 기예를 익히게 하기 위해 탁발사에 사는 한 바라문 밑으로 유학을 보냈다. 뛰어난 자질과 성실함으로 아힘사까는 스승과 스승의 아내로부터 각별한 총애를 받으며 면학에 힘쓰고 있었는데, 이를 질투한 다른 제자들이 앙굴리마라가 스승 몰래 스승의 아내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모함을 했다. 결국 음모에 넘어간 스승은 극도의 배신과 분노를 느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복수하고자 마음 먹었다. 어느 날 스승은 아힘사까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아힘사까야, 아직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특별한 가르침이 있는데, 네게만 가르쳐 주마. 한 번 실천해 보겠느냐?” “물론입니다.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스승이 일러준 특별한 가르침이란, 바로 천명의 남녀를 죽이고 그로부터 송가라 한 개씩을 모아 목걸이를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다.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말에 순간 망설였으나, 아힘사까는 학업을 완성시켜 진리를 깨닫고 싶은 마음에 스승의 말을 믿고 실천하기 위해 사위성으로 들어갔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보이는 대로 칼을 휘두르고 손가락을 잘랐다.

(영화 이야기 본문 참조) 이후, 앙굴리마라는 철저히 계율을 지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했다. 그러나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 앙굴리마라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느 날 사위성으로 탁발을 나간 앙굴리마라를 알아 본 사람들은 그에게 흠뻑어리와 몽둥이, 돌 등을 던지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저 멀리 다리를 절뚰거리며 걸어오는 참담한 모습의 앙굴리마라를 보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앙굴리마라야, 참고 견뎌야 한다. 네가 지옥에서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받아야만 할 일의 과보를, 너는 현재에서 받고 있는 것이다.”

앙굴리마라의 진정한 참회는 출가수행자로서의 삶과 함께 시작되었던 것이다.



깨달은 이의 이 말은 앙굴리마라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즉 자신의 현 상태를 직시하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살기에 가득한 그 마음을 쉬게 되니까 죄 또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죄무자성중심기 심약멸시죄역망 罪無自性從心起 心若滅時罪亦亡). <전수경>에서는 이런 경지를 참된 참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앙굴리마라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부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앙굴리마라는 순식간에 흑에서 백으로 변한 것이지요. 아무리 밤이 깊어도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세상이 환해지는 것처럼 부처님처럼 최상승의 경지에 오른 존재는 앙굴리마와 같은 악인조차도 깨달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앙굴리마라 이야기를 통해서 영민도 불성이 있고, 충분히 훌륭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출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김은주 (자유기고가)-

문수사 기행

영축산 뿔머리에
축령들이 걸렸구나

독수리 맴을 도니
천축이 춤을 춘다

화엄경 제 십 법운지
청량산이 부른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어도

연분홍 진달래로
가슴에 수를 놓고

사랑에 목이 말라
휘파람에 적서 본다

마음에 타는 불꽃을
달빛에다 삭힌다.

출처 : 새미 시문학회 제8집

저은이 : 탁 상 달

- <시조사랑> 동인
- 부산시조시인협회 회원
- 부산 문인 협회 이사
- 부산 동해중학교 교감

중학생이 된 각오와 소감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 중학교에는 언제 들어가나 하고 생각한 적이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중학교에 입학했다. 지금 내 또래 아이들은 누구나 중학교에 입학한다는 기대와 설



1학년 3반 김두원

여 고등학교 진학 목표 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 또는 과학고등학교다. 만약 둘 다 떨어진다고 해도 그전에 했던 공부는 헛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좋은 고등학교 또는 대

학교에 갈 때 중학교 과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학업에만 집중하는 것은 자신의 손해라고 생각한다. 학업에만 집중하는 것은 자신의 손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고등학교가 목표
진학으로 학교의 명예도 드높일 것이다

중학교 생활도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된다. 처음에는 많이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어 초등학교 때처럼 익숙하게 잘 생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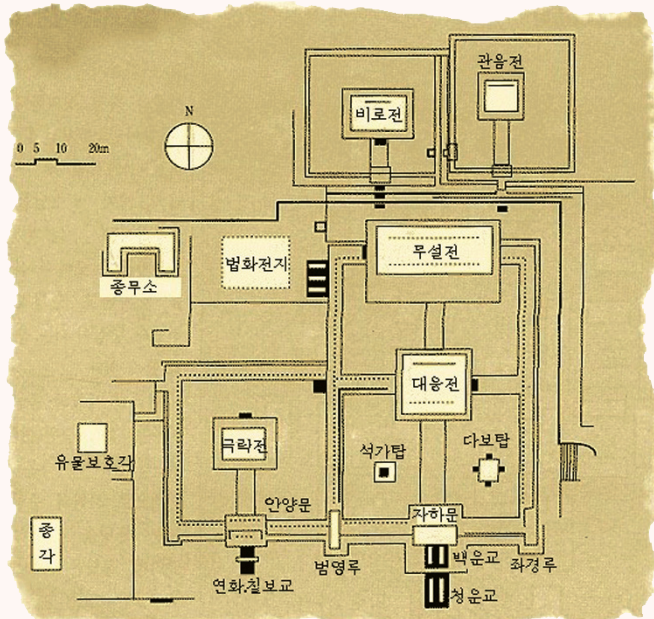
내가 입학하는 학교는 동해중학교이다.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점은 동해중학교는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는 것과 생활지도에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도 되고 더욱 긴장된다. 나는 중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일단 중학교에 다니게 되면 초등학교 때보다 늦게 마치고 때문에 초등학교 때보다 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학교는 초등학교 생활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시간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나의 중학교 동해중학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여 내가 목표로 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학교의 명예도 드높일 것이다. 입학식이 기다려지고 있고 긴장도 된다.



제77회 춘계강공회 지면으로 미리보는 관불 (불국사·석굴암)

〈편집자 주〉



불국사

불국사는 신라인이 염원한 이상의 불국토(佛國土)를 3갈래로 구현한 것으로 〈법화경 法華經〉에 근거한 석가의 사바세계는 대웅전으로, 〈무량수경 無量壽經〉에 근거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극락전으로, 〈법화경〉에 근거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 세계는 비로전으로 대표된다. 즉 불국사의 경내는 석단(石壇)에 의하여 단상(壇上)의 불국토와 단하(壇下)의 속계(俗界)로 양분된다. 청운교·백운교는 자하문(紫霞門)을 거쳐 석가모니의 사바 세계인 대웅전으로 오르게 되어 있다. 대웅전 앞에 있는 3층석탑과 다보탑(多寶塔)은 서로 마주 서 있는 쌍탑구조이며, 뒤편으로는 경론(經論)을 강술하는 무설전(無說殿)을 두고 대웅전 일곽을 동·서 행랑으로 에워싸고 있다. 연화교와 철보교를 올라 안양문(安養門)을 지나면 극락전에 이르게 되며 그 안에 금동아미타불좌상을 안치했다. 무설전 뒤에는 관음전이 있고, 그 서편에는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을 봉안한 비로전이 있다.



다보탑

불국사 대웅전 앞 동쪽에 있는 석탑. 국보 제20호. 높이 10.4m. 〈법화경〉의 〈견보탑품 見寶塔品〉에 근거하여 건립된 것으로 다보여래(多寶如來)를 상징하는 탑이다. 1925년 일본인들에 의해 해체·수리되었으나 이때 발견된 유물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 탑 사방의 보계(寶階)가 마련된 갑석 위에 있던 4마리의 사자상은 현재 1마리만 남아 있다.



석가탑 (불국사 삼층석탑)

국보 제21호. 석가탑 주변 8방에 장식된 여덟 개 연꽃은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하여 8방에 앉은 여러 부처님의 연화좌(蓮華座)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붕돌의 모서리들은 모두 치켜올려져 있어서 탑 전체에 경쾌하게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더한다. 탑의 머리장식(상륜부)은 파손되어 1973년 남원실상사삼층석탑(보물 제37호)의 머리장식을 본따서 복원하였다.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불국사 안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33층 돌다리. 국보 제23호. 석가모니의 불국세계로 통하는 자하문으로 오르는 다리인데, 33계단은 33천(天)을 상징하는 것으로 험한 옥망을 버리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는 다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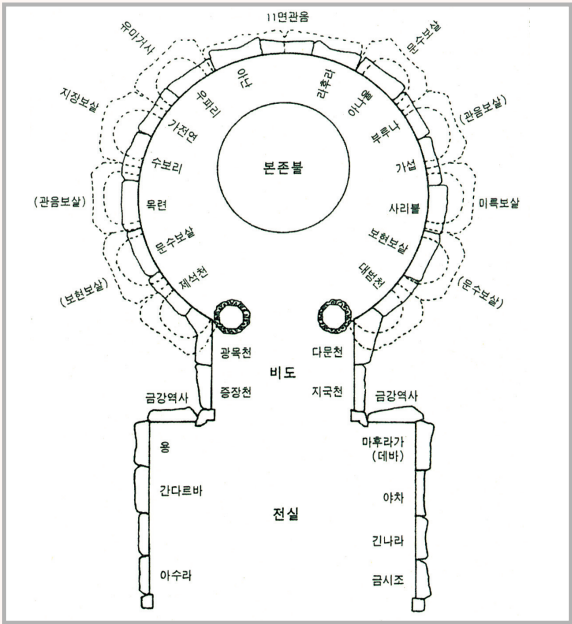
석굴암 (국보 제24호)

석굴암 석굴의 구조는 입구인 직사각형의 전실(前室)과 원형의 주실(主室)이 복도 역할을 하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360여 개의 넓적한 돌로 원형 주실의 천장을 교묘하게 구축한 건축 기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뛰어난 기술이다.

원숙한 조각 기법과 사실적인 표현으로 완벽하게 형상화된 본존불, 얼굴과 온몸이 화려하게 조각된 십일면관세음보살상, 웅장스런 인왕상, 위엄있는 모습의 사천왕상, 유연하고 우아한 모습의 각종 보살상, 저마다 개성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나한상 등이 있다.



▲석굴암 옛모습(1909년)



▲석굴암 평면 배치도



금강역사

불교의 수호신. 대체로 탑 또는 사찰의 문 양쪽을 지키는 수문신장(守門神將)의 구실을 담당하며, '인왕역사(仁王力士)'라고도 한다. 왼쪽에는 밀적금강(密迹金剛), 오른쪽에는 나리연금강(那羅延金剛)이 서 있다. 두 역사의 입 모양이 영 다르다. 왼쪽의 인왕은 입을 '아' 하듯 벌리고 있고, 오른쪽 인왕은 '홀', 하듯 심통 사납게 질끈 다물고 있다. '아' 역사는 창조의 순간에 있는 만큼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고, '홀' 역사는 소멸의 시간을 시간을 담당하니 만큼 방어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십일면관세음보살

석굴암미학연구소 성낙주 소장(석굴암의 진실)

1954년 경기도 화도를 출생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현재 서울 은곡중학교 국어교사 재직

일제는 아첨했잖아 석굴암본존을 비축하는 것은 야마토 태양을 숭배하기 위한 조작된 말. 성 소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대대적으로 진행한 석굴암의 해체, 복원 작업과 이후 이뤄진 성역화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일제는 성전에는 관심 없었어. 석굴암은 그들에게 전리품일 뿐이죠. 그래서 석굴암 외벽에 시멘트를 발랐으면서도, 전각 같은 지붕을 씌우지 않은 거예요. 열려 있어야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온 게 햇살 문제예요. 일본이 숭배하는 야마토 태양의 아첨했잖아 본존불을 비축하라는. 이거 일본 사람이 만들어 퍼뜨린 겁니다. ‘아, 이 위대한 걸 우리가 가졌어’ 하면서 감격한 거죠. 교과서에 석굴암 기행문을 싣고… 대표적인 식민이데올로기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학자들은 앞 다투어 내용을 전파하고 있어요. 제발 왜곡 좀 하지 말자고요.”

포항 MBC에서 제작한 〈경술국치 100년 석굴암 100년의 진실〉은 포항 및 지방에서는 방영되었지만, 2010년 12월 27일 오후 3시 5분에 서울 본사 MBC-TV의 전국방영은 불발되었다. 방영불발된 〈경술국치 100년 석굴암 100년의 진실〉 방송 보러 가기 : http://www.phmbc.co.kr/bbs/boa-rd.php?bo_table=tv_special_docu&newsno=118



준다. 성 소장은 “이는 대표적인 식민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1930년대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보통학교 국어독본, 석굴암 담사기에는 일제가 석굴암을 전리품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